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변액보험 성장 둔화 이후 생명보험시장 특징
지난 10년간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친 10대 요인

◆ 보험산업 개관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 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 마련·추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 시행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 Road Map(안) 공청회 개최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및 동시행세칙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 해외보험 동향

북미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기타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테마진단	1
변액보험 성장 둔화 이후 생명보험시장 특징	1
지난 10년간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친 10대 요인	9
보험산업 개관	23
보험산업 환경	26
1. 해외 경제	26
2. 국내 경제	28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30
보험지표 동향	32
1. 보험산업 총괄	32
2. 생명보험	34
3. 손해보험	45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56
1.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56
2.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 마련·추진	60
3.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 시행	64
4.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 Road Map(안) 공청회 개최	67
5.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및 동시행세칙 개정	71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74
해외보험 동향	76
1. 북미 동향	76
2. EU 동향	86
3. 일본 동향	96
4. 기타 동향	105
통계표	108

테 마 진 단

◆ 변액보험 성장 둔화 이후 생명보험시장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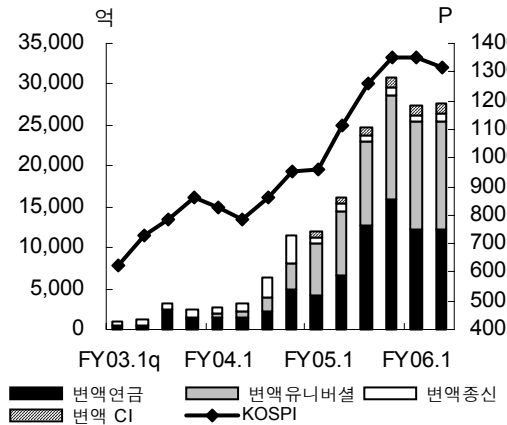
김진익 선임연구원

1. 변액보험 시장 추이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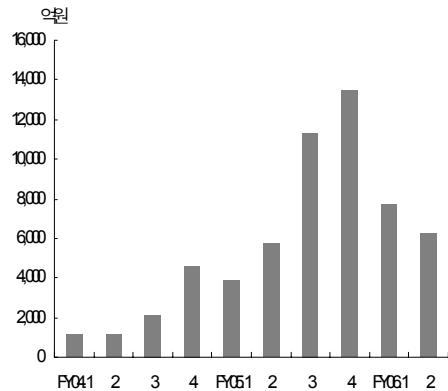
투자형 보험인 변액보험은 FY2006 1/4분기 들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전체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세도 약화되고 있음.

- 투자형 보험인 변액보험은 2001년 처음 도입되어 2004~2005년 저금리/주가상승과 간접투자시장의 붐 그리고 보험회사의 마케팅역량 집중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전체 보험시장을 확대시켜 왔으나 최근 들어 성장세가 크게 약화됨.
- 변액보험시장은 저금리와 주식시장 호조 및 적극적 마케팅의 영향으로 FY2004 212.2%, FY2005 252.4% 등 큰 폭의 성장을 함.
- FY2006 들어 (1) 주가 상승세의 둔화와 불안정, (2) 감독당국의 판매 감독 강화, (3) 불완전 판매를 우려한 일부 보험회사들의 보수적인 판매 전략 등의 영향으로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성장은 크게 약화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5 4/4분기 3조 752억원을 정점으로 FY2006 1/4분기와 2/4분기에는 각각 2조 7,479억원, 2조 7,675억원으로 감소함.
 - 성장 엔진이었던 변액보험의 성장 둔화로 전체 생명보험의 성장률도 FY2005 4/4분기 20.0%에서 FY2006 2/4분기에는 10.0%로 하락함.
- 또한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기준으로도 FY2005 4/4분기 1조 3,421억원을 정점으로 FY2006 1/4분기는 7,677억원, 2/4분기도 6,248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크게 약화됨.

<그림 1> 변액보험 분기별 실적



<그림 2>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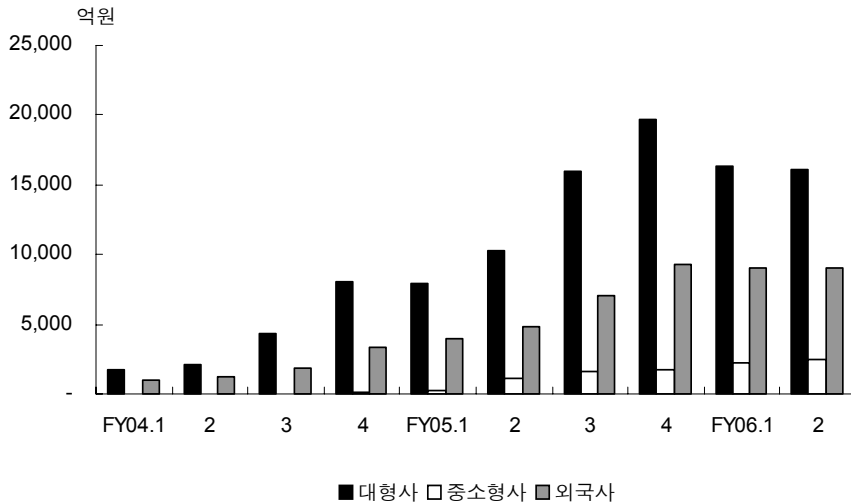


자료 : 각사 월말보고서, 증권선물거래소.

□ 회사 규모별 구분을 통해서 볼 때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는 중소형사나 외국사보다는 대형사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변액보험의 판매에 보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형사 실적은 FY2005 4/4분기 1조 9,686억원을 정점으로 FY2006 1/4분기 1조 6,285억원, 2/4분기 1조 6,148억원으로 큰 폭의 감소를 하였음.
- 외국사의 경우 FY2005 4/4분기 9,313억원을 기록한 이후 FY2006 1/4분기 9,018억원, 2/4분기에는 9,011억원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반면, 국내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는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변액보험 판매에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절대 판매 규모는 분기당 2000억원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그림 3> 회사별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분기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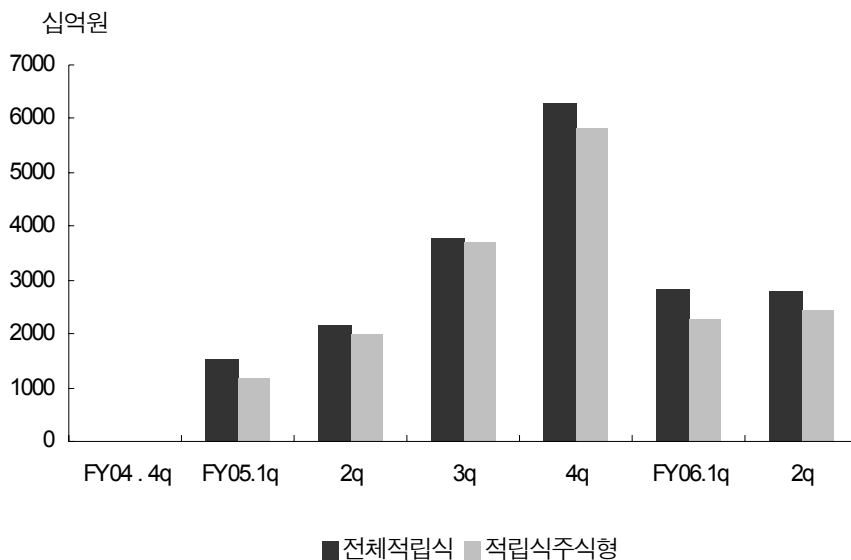
2. 적립식 펀드와 변액보험시장

적립식 펀드시장도 FY2005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변액보험과 같이 FY2006에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와 함께 증가세가 크게 약화되었음.

- FY2005 큰 성장세를 보였던 적립식 펀드시장은 변액보험시장과 같은 시기인 FY2006 상반기 이후 주가의 변동성 증가로 성장세가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적립식 펀드1)시장의 설정잔액은 FY2005 1/4분기말 8조 830억원에서 4/4분기말 20조 3,340억원으로 성장했던 것이 FY2006 2/4분기말(9월말) 현재 25조 9,251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
 - 적립식 펀드의 설정잔액(2006년 9월말)은 간접투자 총판매잔액 규모에서 11.68%를 점유하나 계좌수로는 59.88%를 점유, 개인들의 펀드시장 주참여 수단이 되고 있음.
- 1) 적립식은 펀드의 상품 명칭이 아니라 투자의 자금납입 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 등의 투자방법이 있음.

- 그러나 2006년 상반기에 들어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성장력이 약화됨.
- 적립식 펀드의 분기별 성장률은 FY05 4/4분기 44.9%를 정점으로 FY06 1/4분기는 13.8%로 대폭 하락했으며 2/4분기도 12.0%(2006년 9월말 25조 9,251억원)로 성장세가 둔화됨.
- 이러한 성장률 하락 시점은 변액보험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던 FY06 1/4분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변액보험의 성장률 감소가 컸던 시기와 동일함.

<그림 4> 적립식 펀드 설정잔액 증가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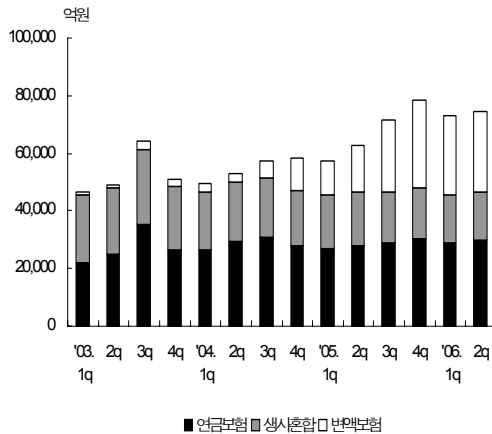
주 : 전분기대비 증가분임.
자료 : 자산운용협회

3. 일반연금/생사혼합보험과 변액보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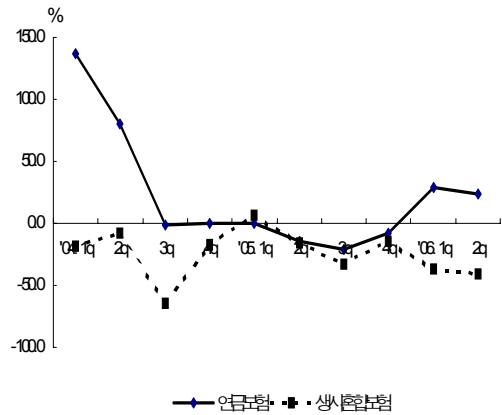
저축성 보험(일반계정 연금 및 생사혼합보험)시장은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시기에도 저성장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변액보험시장의 위축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음.

- 저축형 상품은 변액보험의 성장률이 급증했던 시기나 증가율이 감소한 FY2006 1/4분기~2/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투자형 시장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연금보험은 변액보험이 굳게 성장했던 시기인 FY03 1/4분기 ~ FY06 2/4분기 까지 분기 평균 2.3%의 저성장을 지속해 옴.
- 일반생사혼합보험은 과거 절세 및 고금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저축형 상품이었으나 비과세 저축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 이후 경쟁력을 상실하여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볼 때 일반연금보험이 FY2006 1/4분기 이후 성장세로 전환되어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변액보험이 급격한 성장을 한 기간 중 일반연금보험의 초회보험료성장률은 저조하였으나 변액보험 성장세가 둔화된 FY2006 1/4분기에는 28.4%, 2/4분기 23.9% 성장세로 반전하였음.
- 일반생사혼합보험의 경우는 초회보험료가 FY2006 1/4분기 36.2%나 감소하던 것이 2/4분기는 오히려 40.4% 감소해 감소폭이 확대됨.

<그림 5> 저축/투자형 시장 실적추이



<그림 6> 연금/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 성장률추이



주 : 일반연금보험은 개인연금보험을 포함함. 주 :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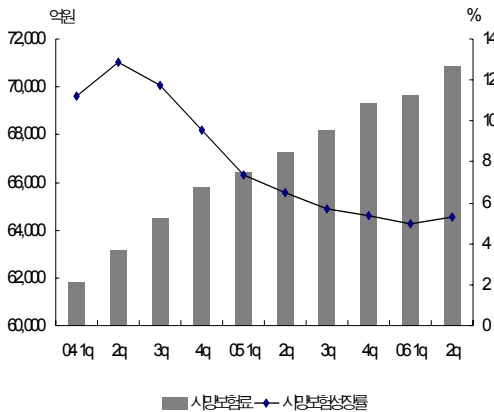
4. 사망보험 시장

사망보험시장도 일반연금과 함께 변액보험시장을 대체할 생명보험 고유영역으로 주목되고 있으나 아직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고 있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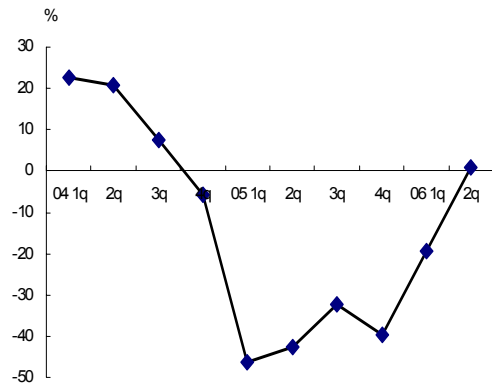
- 변액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하던 FY2005에 성장률이 하락하던 사망보험수입보험료는 FY2006 들어서도 1/4분기 4.9%, 2/4분기 5.3% 성장에 그쳐 저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음.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4 2/4분기 이후 FY2006 1/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5% 전후의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성장세 둔화는 생명보험의 성장축이 종신보험에서 변액보험으로 이동하고 주요 보험회사들이 마케팅 역량을 변액보험에 집중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됨.
- 사망보험 초회보험료는 FY2005 4/4분기 이후 급속도로 감소세를 축소하면서 FY2006 2/4분기에는 소폭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사망보험 초회보험료는 FY2004 10.0% 증가했던 것이 FY2005 40.6%나 감소했으나 FY2006에는 1/4분기 19.3%로 감소폭이 줄고 2/4분기에는 1.0% 증가로 개선되고 있음.
- 대형사의 경우 초회보험료가 FY2005 1/4분기 56.9% 감소한 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FY2006 2/4분기에는 1.8%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외국사도 FY2006 2/4분기에는 7.1%의 성장세로 반전됨.

<그림 7> 사망보험수입보험료 실적추이



<그림 8> 사망보험초회보험료 성장률추이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5. 시사점

변액보험의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연금, 사망보험 등 타 종목이 이를 상쇄할 조짐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 그러나 2007년에는 성장성을 회복하려는 보험회사들의 전략에 따라 상품포트폴리오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성장 엔진의 역할을 하던 변액보험시장의 급격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에서 이를 대체할 조짐을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변액보험의 성장 둔화는 적립식 펀드시장과 같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자본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전에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아직 사망보험과 일반연금 및 일반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을 대체할 만한 구체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일반연금보험과 사망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를 중심으로 성장회복을 보이고 있어 2007년 보험회사들의 마케팅전략에 따라 성장축이 일반연금 및 사망보험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보임.
 - 2007년에는 보다 보험 고유의 영역에 해당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보험회사들은 종목별 성장성을 재평가하고 상품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보다 균형있는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생명보험산업은 최근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등 소수 종목에 의존해서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는 특징을 보여 왔으나, 2007년부터는 중장기적 시장변화를 반영한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신성장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의 성장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고령화도 연금, 질병, 상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만큼, 보험산업 환경도 다양한 종목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음.
 - 변액보험의 경우도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다시 성장력을 회복할 수도 있는 만큼 성장기반 다변화 차원에서 상품 판매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지난 10년간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친 10대 요인

동향분석팀

1. 머리말

국내 보험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던 10대 요인들을 정리, 평가하고 향후 이슈들에 대하여 검토함.

- 국내 보험산업은 과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통해 FY2006 자산규모 300조원을 돌파하면서 금융산업내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이는 보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보험회사, 정책당국 등의 끊임없는 대응과 개선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보험산업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WTO 및 OECD 가입 등 시장 개방, IMF 외환위기, 규제완화 등을 겪으면서 질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지난 10년간 국내 보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 평가하고 향후 다가올 이슈들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함.
 - ① 시장개방 및 외국사 진출 확대, ② IMF 외환위기 이후 EU식 지급여력제도 시행 및 구조조정, ③ 규제완화 측면의 제도적 변화인 가격자유화, ④ 저금리 시대 도래에 따른 자산구성 및 수익률 변화
 - ⑤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보험수요 변화, ⑥ 투자형 기능을 겸비한 변액보험 판매, ⑦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⑧ 대재해 리스크 확대, ⑨ 방카슈랑스 도입, ⑩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확대 등이 있음.

2.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친 10대 요인

국내 보험산업은 OECD 가입 및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시장개방, 규제완화, 저금리 지속,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등 신채널 등장, 다양한 보험수요 확대 등의 영향을 받음.

① 시장개방 및 외국사 진출 확대

□ OECD 가입과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OECD 가입을 통해 각종 진입장벽이 해소되면서 외국자본에 내국인 대우를 부여하고 국경간 거래(Cross-border)를 허용하는 등 보험시장 개방이 질적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IMF 이후 보험산업의 외자유치로 외국사 진출이 본격화 됨.

□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주로 생명보험 시장을 중심으로 진출하였고 최근에는 방카슈랑스채널, 변액보험 판매 등 공격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FY2005 생명보험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8.3%까지 확대되었음.

○ 손해보험에서는 특수하고 전문화된 시장에 국한하여 진출하고 있어 점유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표 1> 보험산업 회사별 시장점유율 및 회사수 추이

(단위 : 개)

구분		FY1995	FY2000	FY2005
생명보험	대형사	61.3% (3)	80.9% (3)	65.9% (3)
	중소형사	38.4% (25)	13.3% (10)	15.8% (9)
	외국사	0.3% (5)	5.7% (8)	18.3% (10)
	계	100% (33)	100% (21)	100% (22)
손해보험	대형사	57.4% (4)	68.0% (4)	71.3% (4)
	중소형사	35.8% (7)	27.9% (7)	23.5% (6)
	외국사	0.4% (3)	0.4% (4)	1.2% (6)
	전업사	6.4% (3)	3.7% (2)	4.0% (4)
계		100.0% (17)	100.0% (17)	100.0% (20)

주 : ()는 회사수, 시장점유율은 생명 수입보험료, 손해 원수보험료 기준임.

② EU식 지급여력제도 도입 및 구조조정

- 지급여력제도는 외환위기 당시 IMF의 권고로 1999년 5월 EU방식을 우리나라 실정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음.
- 특히,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구성된 지급여력비율을 적기시정조치와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은행권에 적용된 BIS비율과 같이 재무건전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음.
-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재편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과거 성장 위주의 전략에서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경영전략으로 전환하는 등 건전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동 제도를 통하여 1998년 이후 총 16개 생명보험회사, 3개 손해보험회사, 2개 보증보험회사가 계약이전 및 M&A를 통하여 구조조정되었음.
- 또한, 금융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음.
- 제도 도입 직전인 1999년 3월말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13.1%, 손해보험회사는 38.6%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함.

<표 2> 생명보험회사의 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단위 : %)

구분	'99.3	'00.3	'01.3	'02.3	'03.3	'04.3	'05.3	'06.3
지급여력비율	13.1	74.2	66.1	146.9	173.7	217.9	230.3	229.9
당시기준적용	210.1	593.4	264.4	293.8	231.6	217.9	230.3	229.9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③ 가격자유화

- 과거 국내 보험산업은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는 특성상 정부 규제하의 협정요율체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1992년 WTO체제 하에서의 금융시장 개방 협상을 계기로

1993년 12월 실질적 경쟁 도입을 위한 보험상품 가격자유화방안이 확정됨.

- 생명보험의 가격자유화는 계약자배당을 시작으로 해서 보험료는 범위요율에서 완전자유요율로 확대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 손해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종목별로 추진일정이 달랐고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가보험료와 순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자유화하였음.
- 가격자유화의 추진을 통해 보험회사는 계약자 특성을 반영한 요율로 특화된 다양한 상품 공급이 가능해져 상품개발이 활발해진 반면, 시장점유율 확대 목적의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의 우려도 발생하고 있음.

<표 3>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구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시기	1994.4	1995.4	1997.4	2000.4
계약자배당	-	위험률차배당 (사차배당)	이자율차배당 (이차배당)	사업비차배당 2002년부터 실시
보험료	예정사업비율중 일부(유지비)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자율

<표 4>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구분	범위요율	자유요율
1994.4.	선박, 운송, 기업성특종 장기(예정유지비) 자동차(할인할증률)	
1995.4.	적하, 화재, 가계성특종 자동차(가입경력요율)	
1996.4.	자동차(종합보험 기본보험료) ^{주)}	선박, 운송, 기업성특종
1997.4.	자동차(책임보험 기본보험료) 장기(예정위험률)	적하, 화재, 가계성특종
1998.4.	장기(예정이율)	
2000.4.		장기 완전자유화 자동차 부가보험료 자유화
2001.4.		자동차 순보험요율 자유화

주 : 자동차보험은 2단계 범위요율부터 시행기준일이 8월로 변경되었으며 2000년 4월 이후 범위요율이 폐지됨.

④ 저금리 시대 도래 및 자산운용 패턴의 변화

□ IMF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추세는 금리 역마진 문제와 함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과거 고성장세를 지속하던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경험하고 투자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금리는 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국고채(5년) 금리의 경우 FY1998년 평균 13.2%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FY2005에는 4.52%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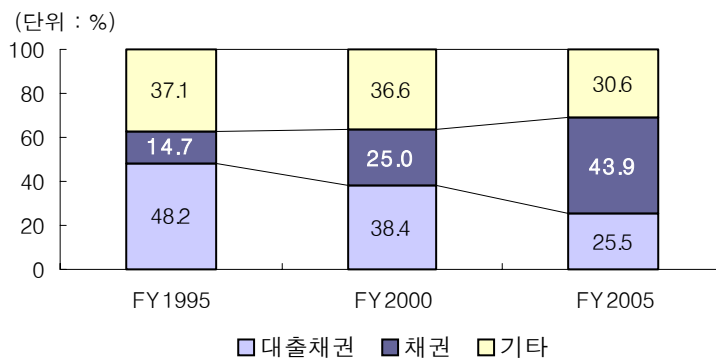
□ 외환위기와 저금리 기조의 지속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자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지만,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산운용전략을 구사하게 함.

○ 기업대출 등 대출금 규모를 축소하고 안전한 자산에의 투자 비중을 높이는 등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상의 변화를 야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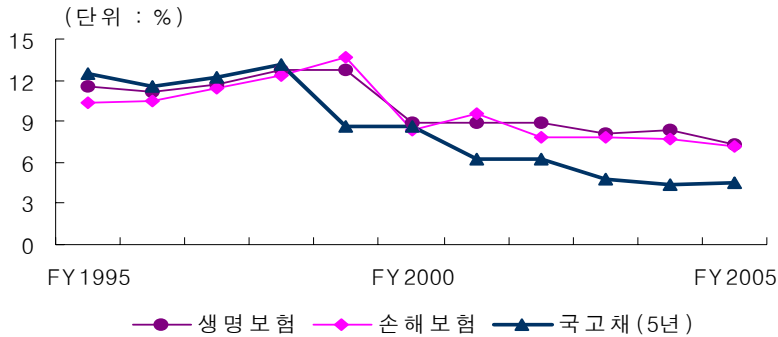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출채권의 비중이 전체 운용자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국공채 등 채권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채권, 대출채권 등 저금리 환경 하에서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 자산운용수익률은 감소하고 있음.

<그림 1>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구성비



<그림 2> 금리 및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 한편, 과거 안정적 성장기의 경제 상황 하에서 판매된 고금리보장상품은 시장이율의 하락으로 금리역마진의 문제를 야기시켜 국내 보험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음.

- 보험회사에서는 금리역마진의 해소를 위해 그간 몇 차례에 걸쳐 예정이율의 인하를 단행한 바 있으며, 저금리 기조 지속에 대비하여 최저 보장이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⑤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보험수요 변화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한 수요 변화가 보험산업에 반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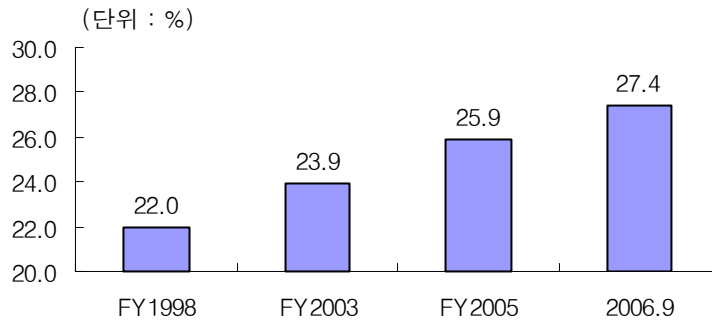
- 50대 인구 구성비가 2005년 10.9%에서 2015년 15.0%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²⁾, 은퇴와 관련된 각종 보험수요 즉, 저축, 투자, 연금, 건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상품의 성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일반연금, 개인연금, 변액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생존보험이 전체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존보험의 점유율은 FY1998 22.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6년 9월 27.4%로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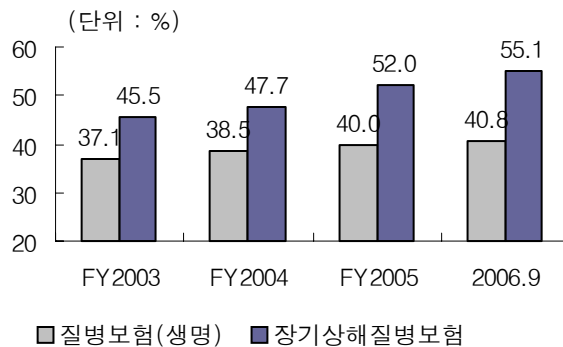
2) 보험개발원, 『보험산업 주요 지표의 중장기 전망』, 2005.12, p68.

<그림 3> 전체 생명보험에서 생존보험의 비중 추이



- 한편, 건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질병 관련 상품의 성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사망보험에서 차지하는 질병보험 비중은 2006년 9월 40.8%로 확대되었으며, 장기 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55.1%로 증가함.

<그림 4> 질병보험 및 장기상해질병보험의 비중



주 : 질병보험은 사망보험에서의 점유율, 장기상해질병보험은 장기손해보험에서의 점유율임.

⑥ 변액보험 판매

- 2001년 도입 이후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며 생명보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변액보험은 보험측면과 투자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적 금융상품으로서 금융겸업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상품이기도 함.
- 변액보험은 도입 초기 전문 판매인력의 부재, 금융시장 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부진한 판매실적을 나타내었으나, 2004년 4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판매 개시된 적립식펀드와 함께 간접투자시장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FY2005 전체 생명보험에서 17.6%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등 생명보험의 신성장 영역으로 발전하였음.
-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보장성보험 중심의 시장 구도에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내면서 보험산업이 기본 위험보장 외에 저축 및 투자 역할도 수행한다는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였음.
- 반면 변액보험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분쟁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험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표 5> 변액보험 성장률 및 구성비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성장률	2722.6%	285.7%	212.2%	252.4%	94.8%
구성비	0.4%	1.5%	4.4%	13.6%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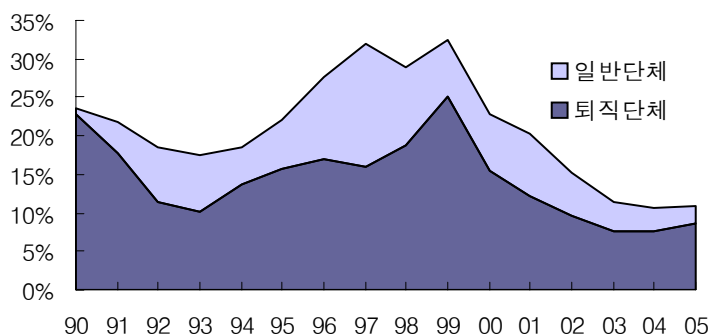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⑦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변화

- 기업의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보험은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연금 등이 있으며, 생명보험의 단체보험 시장은 주로 퇴직 후 보장을 담보하는 퇴직보험/연금이 주도하여 왔음.

- 퇴직보험/연금 시장은 관련 제도변화에 따라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으로 변천하여 왔음.
- 1977년 퇴직금의 사외적립과 보험료의 손비인정을 골자로 하는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의 도입은 단체보험 시장을 확대시켰으며, IMF 외환위기 전후에는 전체 생명보험에서 3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이후 2000년 10월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이 판매 중지되고 퇴직보험이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에도 신탁 형태로 확대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음.
- 반면, 일반단체보험은 IMF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매우 저조한 성장을 나타냄.
- 이와 같이 단체보험 시장은 퇴직보험 관련 제도 및 정책변화에 시장규모가 좌우되었으며 전체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단체보험은 근로자 노후보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저렴한 사업비와 단체성에 의한 역선택 위험 감소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근로자 복지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음.

<그림 5> 전체 생명보험에서 단체보험의 비중(수입보험료)



⑧ 대재해 리스크 확대

- Swiss Re의 분석에 따르면³⁾ 보험피해액 기준 세계 40대 재해피해의 60%인 24건의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 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9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재난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음.

□ 대재해 리스크는 보험산업에 있어서 재산 손실 담보, 해외 재보험 출재 여건 변화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증대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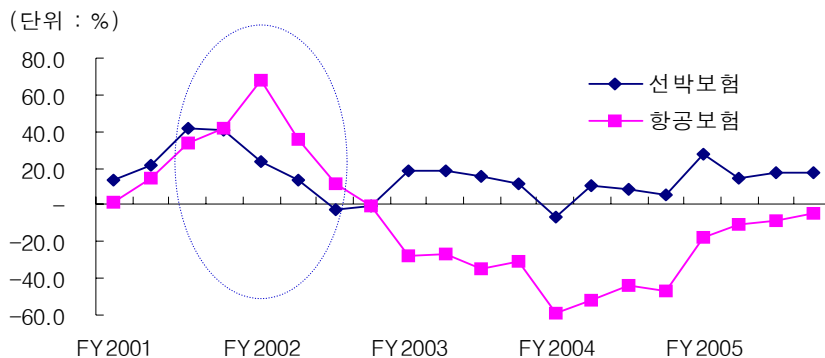
- 대재해 발생은 해외 재보험 시장을 경색화시키면서 요율 인상, 재보험 인수조건 강화 등 국내 보험산업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됨.

-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해외 재보험시장 경색으로 요율이 인상되면서 선박보험, 항공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율도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이후 연성화됨에 따라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음.

- 특히, 9.11 테러는 대규모 재해에서 인적 재난피해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 대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자연재해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가 잇달아 도입되고 있으며, 인위적 재난을 담보하는 보험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림 6> 9.11 테러 전후 선박 및 항공보험 보험료 성장률



3) Swiss Re, 『Natural Catastrophes and Man-made disasters 2005』, Sigma No2/2006,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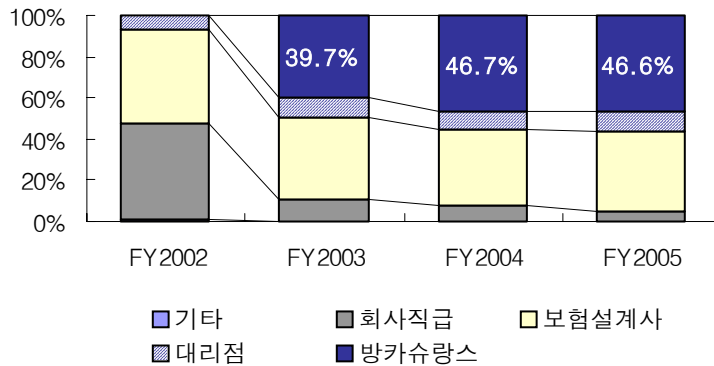
<표 6> 자연재해 관련 보험제도 현황

구분	도입연도	관련법률	보험회사 역할	국가보조
농작물재해보험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	재보험자로 참여	순보험료 50% 사업비 전액
풍수해보험	2006년 시범사업	풍수해보험법	재보험자로 참여	순보험료 50% 사업비 전액
양식재해보험	2008년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	재보험자로 참여	순보험료 50% 사업비 전액

⑨ 방카슈랑스 도입

- 방카슈랑스는 2003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주요 채널의 하나로 부각되었음.
 - 1단계 도입 이후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05.3월 방카슈랑스상품 및 판매일정의 단계별 시행, 은행의 1개 보험사 판매비중 인하(49%→25%), 은행의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기준 마련 및 상품 심사강화 등 방카슈랑스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함.
- 방카슈랑스의 도입은 보험산업에 있어서 판매채널 구도 변화뿐만 아니라, 회사별 시장점유율 변화,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우려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FY2005 전체 생명보험에서 방카슈랑스의 점유율이 46.6%에 달했으나, 이에 반해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사직급, 보험설계사 등 기존 전통채널의 점유율이 다소 축소되었음.
 -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가 확대되면서 방카슈랑스 이용도가 높은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함.
 - 한편,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취소율이 12%(2005년 1~12월)에 달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그림 7>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점유율(초회보험료)



<표 7> 회사 그룹별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

(단위 : %)

구 분	FY03	FY04	FY05
대형3사	39.3	32.6	29.1
중소형사	38.2	36.8	46.7
외국사	22.5	30.6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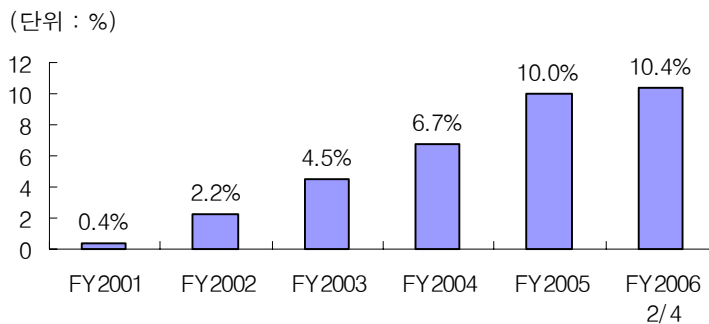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⑩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 확대

-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2003년 10월 사업비 절감을 통한 저렴한 온라인 자동차 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하여 최근 전체 자동차보험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0.4%로 급격히 확대되었음.
- 대부분의 손해보험에서는 고객기반 확대, 시장지배력 유지, 타사의 진출에 따른 위기의식 등에 기인하여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음.
 - 2006년 10월 현재 4개의 온라인 전업사와 8개의 손보사(온-오프라인 겸업)가 온라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고 상품선택의 폭 확대로 보험가입상의 편의 증가 등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보험회사에는 틈새시장 발굴을 통한 시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였음.
- 반면, 시장 선점을 위한 가격경쟁으로 자동차보험 전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과의 갈등구조를 야기시킴.

<그림 8>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추이



3. 향후 과제

보험산업 환경변화는 금융겸업화에 따른 경쟁 심화 및 새로운 기회요인 확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보험산업은 과거 고성장기를 거쳐 시장개방, 규제완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변화에 대처하여 왔으며, 현 시점에서 보험산업을 둘러싼 크고 작은 변화는 지속되고 있음.
- 향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는 주로 경쟁 심화 및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 요인 증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금융겸업화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 및 제도 개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므로 타 금융권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융권간 업무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산업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의 균형적 규제 정책 마련을 위한 금융통합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보험산업은 노후보장에 특화하여 타 금융권 기능을 결합한 상품 개발을 통해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자산운용 능력 배양을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하도록 함.
- 둘째,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며, 퇴직연금 시장은 타 금융권과의 경쟁이 예상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서 보험산업에 있어서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보험산업은 기존 모집조직을 최대한 활용한 판매 확대, 연금보험 취급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상품 개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배양 또는 아웃소싱을 통한 자산운용능력 제고 등 전략마련이 요구됨.
- 셋째, 2003년 처음 도입된 방카슈랑스 제도는 2008년 3월 자동차보험 등 전 보험종목에 걸쳐 완전히 개방될 예정으로 판매채널에 있어서 또 한번 일대 변혁을 야기시킬 수 있음.
-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보험회사는 은행과의 적정한 가격을 갖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채널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2008년 자동차보험 등 완전 개방 이후 더욱 중요시될 것임.
- 특히, 자동차보험은 온라인채널 등장으로 수익성 악화현상이 구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될 경우 가격인하 및 수익성 관리 측면에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넷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RAAS, RBC, 리스크 공시 등 제도 도입 및 개선을 통한 보험산업 재무건전성 강화가 추진될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경영체제에 많은 변화를 수반할 것임.
- 전사적 차원에서의 리스크관리 중심 경영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적 리스크 분석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야 하며, 리스크 공시항목 확대에 대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에 노력해야 할 것임.

보험산업 개관

단체보험에서 퇴직연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연금 내에서는 확정기여형의 적립금 비중은 감소하고, 확정급부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생명보험 전체에서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단체보험 내에서 퇴직연금의 수입보험료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함.
- 2005년 12월 퇴직보험의 신규 판매 중지 및 퇴직연금의 도입에 따라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는 FY2005 3/4분기에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감소하고 있음.
- 퇴직연금은 도입 이후 FY2006 1/4분기까지 정착이 지연되었으나, 2006년 8월 이후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FY2006 2/4분기에는 1,278억원이 거수되면서 단체보험에서 13.9%의 비중을 차지함.
- 일반단체보험은 지속적으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FY2006 2/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8%가 감소하였음.

<표 1> 단체보험 분기별 수입보험료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FY2005			FY2006	
	2/4	3/4	4/4	1/4	2/4
일반단체	3,662 (37.0)	3,559 (10.2)	3,362 (29.8)	3,210 (24.5)	2,992 (32.6)
퇴직보험	6,229 (63.0)	30,889 (88.8)	7,855 (69.5)	9,698 (74.1)	4,916 (53.5)
퇴직연금	-	318 (0.9)	81 (0.7)	188 (1.4)	1,278 (13.9)
단체보험	9,891 [7.0]	34,766 [19.6]	11,298 [7.0]	13,095 [8.3]	9,186 [5.9]
생명보험	141,537 [100]	175,623 [100]	160,628 [100]	157,136 [100]	155,651 [100]

주 : 1) () 안은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에서 해당 종목 수입보험료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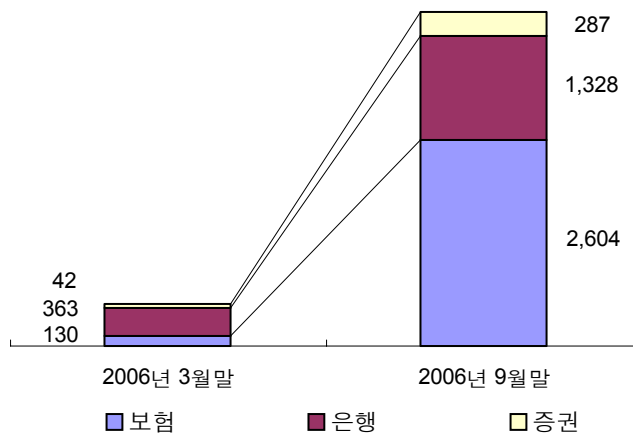
2) [] 안은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비중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를 보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은행의 적립금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2006년 9월 말 현재에는 보험권의 적립금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
- 보험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6년 3월 말 130억원(24.3%의 점유율)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2006년 9월 말에는 약 20배가 증가한 2,604억원(61.7%의 점유율)을 기록함.
- 은행권의 적립금은 2006년 3월 말까지 363억원(67.9%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나 2006년 9월에는 약 4배 증가에 그친 1,328억원(31.5%의 점유율)을 기록함.
- 상대적으로 증권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는 미미하여 2006년 9월 말 현재 287억원, 6.8%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음.

<그림 1> 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단위 : 억원)



자료: 금융감독원

- 보험권 내에서 퇴직연금 종류별 적립금 추이를 살펴보면 퇴직연금 도입 초기에는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부형(DB)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확정급부형이 대부분을 차지함.

- 보험권 내에서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은 2006년 3월말까지는 57.1억원의 적립금으로 44.0%의 비중을 그쳤으나 2006년 9월말에는 2338.4억원의 적립금을 기록하면서 비중도 89.8%를 차지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2006년 3월말에 66억원으로 50.9%의 비중을 나타내었으나 2006년 9월말에는 244.6억원으로 비중이 9.4%로 크게 감소함.
- 퇴직연금 중 개인퇴직계좌는 2006년 3월말에 6.7억원으로 5.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6년 9월말에는 20.7억원의 적립금을 기록하면서 비중은 0.8%로 크게 감소함.

<표 2> 보험권의 퇴직연금 종류별 적립금 추이

(단위: 억원, %)

	확정급부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2006년 3월말	57.1 (44.0)	66.0 (50.9)	6.7 (5.1)
2006년 9월말	2,338.4 (89.8)	244.6 (9.4)	20.7 (0.8)

주 : () 안은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에서 각 종류별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금융감독원

(동향분석팀)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2006년 3/4분기에 미국, 일본, 유로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반면, 중국이 고성장을 지속하고, 미국의 경기둔화로 장기금리가 낮아지면서 주요국 화폐에 대해 달러화가 약세기조를 나타냄.

- 2006년 3/4분기에 중국의 고성장세가 지속된 반면, 미국 경제는 크게 둔화되었으며, 일본과 유로지역의 성장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회복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경제는 2006년 9월까지 주거용 건축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3/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로 1.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12월에 최종 발표한 성장률은 이 보다 높은 2.2%를 기록함으로써 경착륙 우려가 다소 완화됨.
- 중국경제는 임금 상승, 소매판매의 지속적 촉진, 수출의 꾸준한 성장세에 따라 2006년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4%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함.
- 일본은 3/4분기에 예상과 달리 전기대비 연율 0.8%로 GDP 성장률이 하락하였으나 10월에는 생산 및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자본재 출하가 증가로 전환되는 등 회복기조를 나타냄.
- 유로지역의 경제는 3/4분기 중 GDP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이후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고용도 양호한 모습을 나타냄.

<표 1> 주요국 GDP성장률 추이

(단위: %)

	2005			2006		
	3/4	4/4	연간	1/4	2/4	3/4
미 국	4.2	1.8	3.2	5.6	2.6	2.2
일 본	1.8	4.0	2.6	2.7	1.1	0.8
중 국	9.8	9.9	9.9	10.3	11.3	10.4
유 로	0.6	0.3	1.4	0.8	1.0	0.5

주 : 중국 동기비, 유로 전기비, 그 외 전기대비 연율.
자료 :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2006. 12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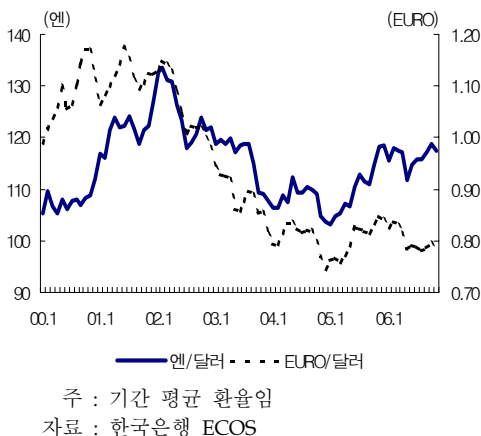
(단위: %)

	2005		2006		
	3/4	4/4	1/4	2/4	3/4
개인소비지출 ¹	3.9	0.8	4.8	2.6	3.1
주거건축투자 ¹	7.1	-0.9	-0.3	-11.1	-17.4
산업생산 ²	1.4	5.3	5.1	6.6	3.6
소매판매 ²	1.9	0.5	3.2	0.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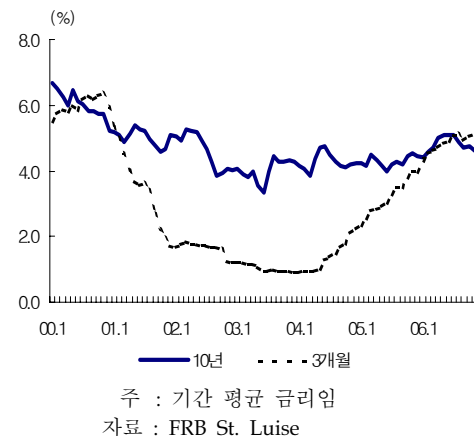
주 : 1은 전기비 연율, 2는 전기비.
자료 : 재경부, 『최근경제동향』 2006. 8

- 2006년 3/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5월 이후 지속적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락하여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됐으며, 미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약세폭이 확대됨.
 -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7월에 장단기금리가 역전된 이후 11월에는 재무성증권의 3개월 만기 금리가 5.07%,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60%를 기록하면서 금리 역전폭이 확대됨.
 - 2006년 3/4분기에는 미국 경제의 둔화, 미국과 유로 및 일본의 금리격차 축소 전망 등에 따라 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 약세폭이 확대됨.
 - 2006년 8월 유로화는 달러당 0.781유로에서 12월에는 달러당 0.757유로로 하락하였고, 엔화는 8월에 달러당 115.8엔에서 이후 12월에는 117.2엔으로 상승함.
- 미국의 주식시장은 2006년 3/4분기 중 기업실적 호조가 가시화됨에 따라 11월 중순경에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함.
 - 미국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경기둔화 전망 및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6월에는 11,150으로 하락하였으나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11월에는 12,222로 크게 상승
 - 나스닥지수도 7월에 2,092를 기록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기업실적 호조에 따라 11월에는 2,432로 상승함.

<그림 1> 국제환율 추이



<그림 2> 미국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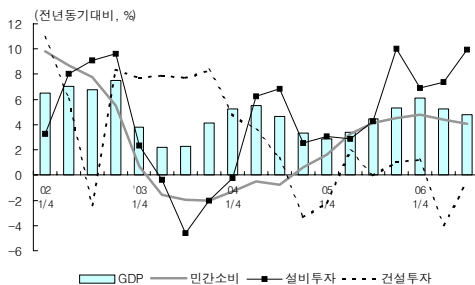


2. 국내 경제

2006년 3/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8%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여 무역수지는 흑자를 지속하였으며, 국고채(3년) 금리는 11월 들어 다소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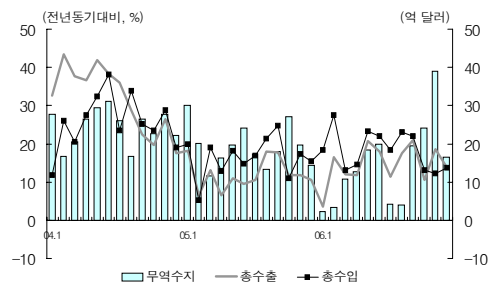
- 2006년 3/4분기 중 GDP는 제조업 생산, 설비투자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8% 성장하였으나,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및 건설업 부진 등에 따라 전분기대비 1.1% 성장하는데 그침.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전년동기대비 8.8% 성장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고, 서비스업은 성장세가 소폭 둔화, 건설업은 부진하였음.
 - 3/4분기 중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4.0%(전기비 0.6% 증가) 증가하였으나 상반기 증가율 5%대 초반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됨.
 - 3/4분기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하였고,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하였으나 토목건설 공사실적 호전으로 전분기대비 2.9% 증가함.
- 2006년 3/4분기 무역수지는 수출의 두 자릿수 증가세가 지속되어 호조세를 나타내었고 수입은 원유가격 상승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3/4분기 수출은 반도체, 철강 등의 증가세에 따라 동기대비 16.7% 증가한 830억 달러, 수입은 원자재 수입 증가세 지속으로 21.1% 증가한 802억달러를 기록함.

<그림 3> 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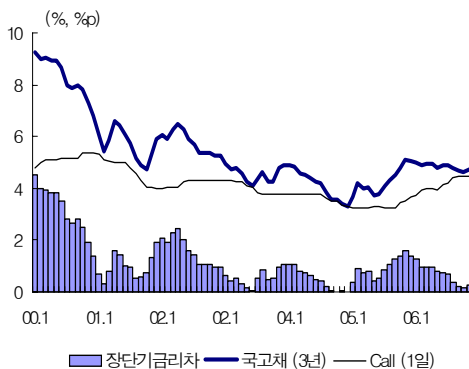
<그림 4> 대외 거래 지표 추이



자료 :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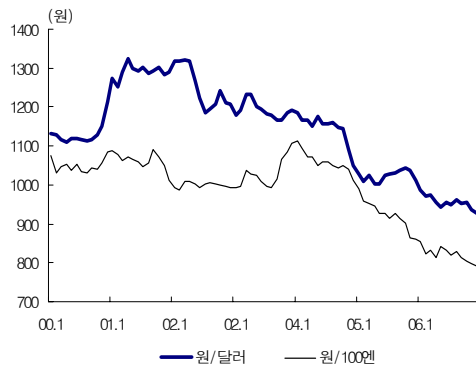
- 한국은행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4.50%)에서 유지하였고, 11월에 지급준비율 인상을 결정하면서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이 상승하여 장단기 금리차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냄.
- 한국은행은 8월에 콜금리 목표를 연 4.50%로 상향조정 한 이후 11월에는 4.50%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방향을 의결하였음.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경기의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10월에는 4.62%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11월에는 지급준비율 인상을 결정하면서 4.72%로 상승함.
- 환율은 2006년 12월 말까지 원/달러 및 원/100엔 환율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원화의 평가절상 추세가 지속되었으며, 기업들의 환위험 헤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2006년 3/4분기에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공급 우위 등에 따라 12월 평균 925.7원까지 하락하였고, 원/100엔 환율도 1월 평균 854.3원에서 12월에는 790.2원까지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의 상승 추세가 지속됨.
- 이와 같은 환율 하락은 국내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환 헤지와 결제 통화 다변화 필요성이 증가함.

<그림 5>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그림 6>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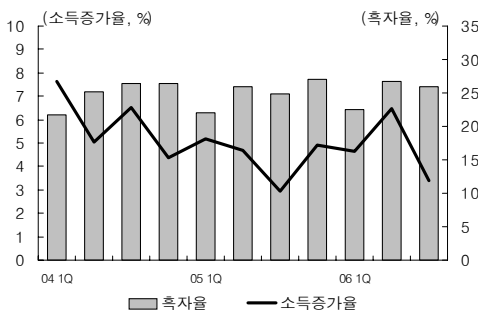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ECOS

3. 가계경제 및 시중 자금이동

소비자기대지수는 2006년 11월 들어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으며, CY2006 3/4분기 중 시중 자금은 증권 및 투신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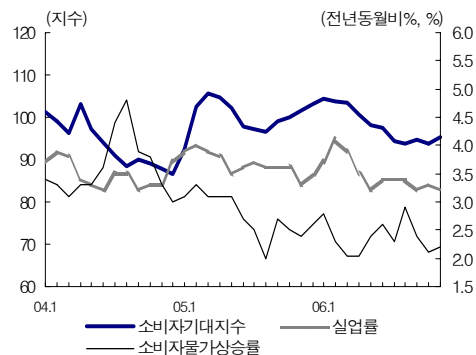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100 이하를 밑돌고 있어 향후 경기를 불투명하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실업률은 3/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3.5% 수준을 유지하였고,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증가세는 둔화됨.
- 소비자기대지수는 5월에 100이하로 악화된 이후 10월에 93.9까지 하락하다가 11월에는 95.2로 다소 상승하였고, 연령대별로는 20대 연령층에서 100을 상회하였으며,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지속적으로 100이하를 나타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고유가 파급,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3/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4%가 상승하였으나 이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하되면서 11월에는 2.2%로 하락하였으며, 계절 조정후 실업률은 3/4분기 이후 3.5% 수준을 유지함.
- 2006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42만4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실질기준 0.8% 증가)에 그쳤으며, 소비부진에 따라서 흑자액은 754.9천원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함.

<그림 7> 도시가계 소득, 흑자율



주 : 흑자율= 1- 소비지출/가처분소득
 자료 : 통계청

<그림 8>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자료 : 통계청

- 2006년 3/4분기(FY2006 2/4분기)중 은행 수신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 투신권은 채권형 및 혼합형 펀드로 수신이 증가, 증권사는 종합주가지수 상승과 함께 고객예탁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
- 3/4분기에 은행의 경우 정기예금이 호조를 보였으나 CD 등의 단기수신 감소로 일반계정의 수신이 전분기대비 축소되었으며, MMDA의 자금 유입으로 신탁계정의 수신은 다소 증가함.
- 투신권의 경우 MMF 수신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채권형 및 혼합형 펀드의 수신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분기대비 수신이 크게 증가함.
- 증권사의 경우 1200 포인트에서 횡보하던 종합주가지수가 9월에는 평균 1350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고객예탁금 유입이 이어져 3/4분기 중 순수신은 약 4조8천억원을 넘어섬.
- FY2006 2/4분기에 보험권의 수신은 생명보험의 생존보험에서 성장률이 향상되고 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약 1조2천억원 증가한 8조9천6백억원을 기록함.

<표 3>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CY2004	CY2005				CY2006		
	4/4	1/4	2/4	3/4	4/4	1/4	2/4	3/4
보 험	94,002	55,643	71,225	77,359	92,935	81,083	93,699	89,600
생명보험	75,500	42,277	53,602	60,022	75,781	66,460	74,238	69,914
손해보험	18,502	13,366	17,623	17,337	17,154	14,623	19,461	19,686
은 행	-28,410	-20,297	176,673	96,532	49,098	-41,969	225,384	128,483
일반계정	-13,394	-30,494	196,056	84,452	41,787	-85,002	183,429	82,785
신탁계정	-15,016	10,197	-19,383	12,280	7,311	43,033	41,955	45,698
증 권	-11,172	16,898	11,948	17,618	19,175	-8,291	18,650	48,065
투 신	148,323	52,889	46,962	-37,592	74,571	184,828	-5,011	25,649
종 금	-18,256	19,416	2,048	-10,616	40,443	5,651	31,812	53,010

주 :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최영목 부연구위원)

보험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6 2/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변액보험 성장률이 하락했으나 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에서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2.0%의 성장률을 기록함.

- FY2006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12.0% 성장함.
- 생명보험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 왔던 변액보험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0.0%로 성장률이 둔화됨.
 - 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이 지속적인 실적호조를 나타내면서 전체 원수보험료의 성장세를 견인하여 전년동기대비 16.5% 성장률을 기록함.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4	FY2005					FY200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537,506	136,933	141,537	175,623	160,628	614,722	157,136	155,651
	6.7	13.0	11.7	12.8	20.0	14.4	14.8	10.0
손해보험	232,173	61,236	62,063	69,438	64,498	257,235	69,259	72,299
	8.6	9.8	8.8	11.6	12.8	10.8	13.1	16.5
합 계	769,679	198,169	203,600	245,061	225,126	871,957	226,395	227,950
	7.2	12.0	10.8	12.4	17.8	13.3	14.2	12.0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6 2/4분기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이 전분기대비 4.0%, 손해보험이 3.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0%의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냄.

- FY2006 2/4분기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증가세가 회복되면서 4.0% 증가한 308조 7,957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4.0% 증가한 255조 9,10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준비금전입액과 특별계정 자산이 증가한 데 기인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3.9% 증가한 52조 8,852억원으로 장기손해보험 중심의 보험영업실적 개선과 투자영업이익 확대에 기인함.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2,170,712	2,240,311	2,347,662	2,393,619	2,393,619	2,460,733	2,559,105
	2.6	3.2	4.8	2.0	13.1	2.8	4.0
손해보험	450,522	466,126	488,995	492,774	492,774	508,801	528,852
	3.6	3.5	4.9	0.7	13.4	3.3	3.9
합계	2,621,234	2,706,437	2,836,657	2,886,393	2,886,393	2,969,534	3,087,957
	2.8	3.3	4.8	1.8	13.2	2.9	4.0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6 2/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0% 증가한 15조 5,651억원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됨.
 -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의 성장률이 감소하였으나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성장률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1.3% 상승함.
 -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보험의 신규판매증지에 따른 성장이 멈추면서 전년동기대비 -7.1%의 성장률을 기록함.
- FY2006 2/4분기 생명보험의 총자산 규모는 255조 9,105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0% 증가함.
 - 특별계정의 수입보험료가 증가되고 준비금전입액도 증가하면서 총자산은 꾸준히 증가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2/4
총 자 산	2,170,712	2,240,311	2,347,662	2,393,619	2,393,619	2,460,733	2,559,105
	2.6	3.2	4.8	2.0	13.1	2.8	4.0
수입보험료	136,933	141,537	175,623	160,628	614,722	157,136	155,651
	13.0	11.7	12.8	20.0	14.4	14.8	10.0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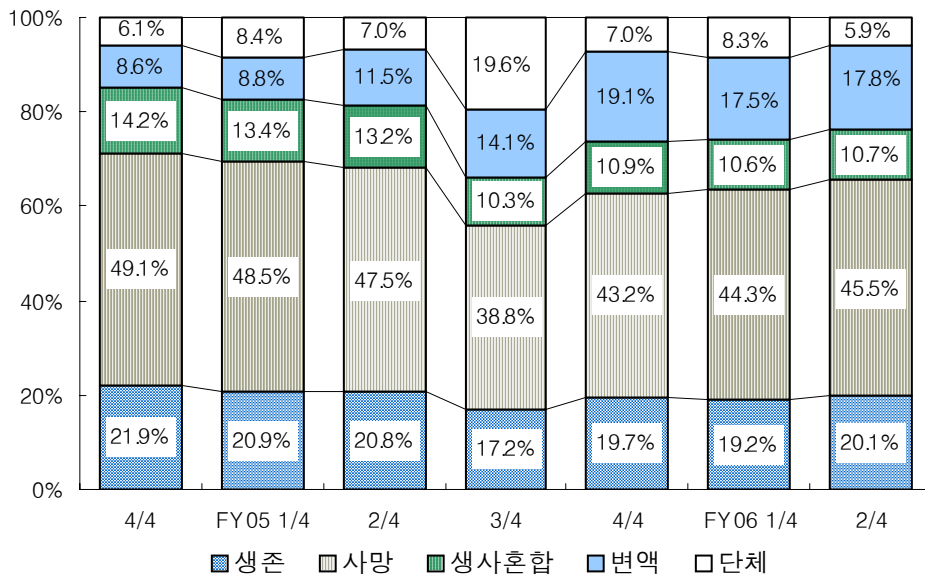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6 2/4분기 생명보험의 종목별 비중은 사망보험이 증가 추세를 나타낸 반면, 단체보험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변액보험은 FY2006 1/4분기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비중이 축소됐으나, 이후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2/4분기에는 비중이 소폭 증가함.
- 사망보험(일반계정) 비중은 45.5%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0%p 감소했으나 최근 3분기 연속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생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0.7%p 감소한 20.1%의 비중을 보였으며 연금보험의 저조한 성장으로 비중변화는 크지 않음.
- 일반계정 중 무배당보험 구성비는 전년동기대비 2.1%p 증가한 87.7%였고 금리연동형 보험은 1.9%p 증가한 46.1%를 차지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6 2/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의 성장률이 감소하고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이 소폭 성장에 그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한 14조 6,465억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 생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 3조 1,31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서 0.8%p 상승함.
 - 이는 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보험이 전년동기대비 7.4% 증가(전분기대비 0.7%p 증가)하면서 전제 생존보험이 성장한 결과임.
 - 일반계정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3% 성장(전분기대비 0.4%p 증가)한 7조 840억원을 기록함.
 - 이는 질병보험이 전년동기대비 8.3%, 종신보험이 0.8% 증가한데 기인함.
 -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1.0% 감소한 1조 6,636억원의 실적을 보이면서 전분기보다 감소세가 심화되었음.
 -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던 변액보험의 경우, 2/4분기 성장률이 70.7%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최근 성장률이 100%이하로 처음 하락하는 것임.
- FY2006 2/4분기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7.1% 감소한 9,186억원을 기록하여 최근 양호한 성장세에서 감소세로 반전함.
 - 퇴직연금은 1,278억원이 거수되면서 양호한 실적을 거둠.
 - 반면 퇴직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21.1%와 -18.3%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단체보험의 감소세를 초래함.
- FY2006 2/4분기에 상품별로는 일반계정 변액보험이 전년동기대비 82.2% 증가했으며 이는 1/4분기에 비해 증가율이 감소한 것임.
 - 장기건강보험도 34.5% 증가하였으나 규모는 395억원으로 아직 적었으며, 어린이보험이 3.9% 증가한 6,106억원이었음.
 - 상해보험이 0.7% 증가에 그쳤으나 규모는 6,123억원이었음.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료	121,366	28,600	29,441	30,125	31,722	119,887	30,188	31,314
	성장률	4.9	1.2	-5.6	-7.4	8.0	-1.2	5.6	6.4
	구성비	22.6	20.9	20.8	17.2	19.7	19.5	19.2	20.1
사망	보험료	255,338	66,402	67,289	68,182	69,342	271,215	69,685	70,840
	성장률	11.3	7.4	6.5	5.7	5.4	6.2	4.9	5.3
	구성비	47.5	48.5	47.5	38.8	43.2	44.1	44.3	45.5
생사 혼합	보험료	79,646	18,312	18,700	18,070	17,514	72,596	16,689	16,636
	성장률	-15.7	-8.6	-7.7	-10.9	-8.2	-8.9	-8.9	-11.0
	구성비	14.8	13.4	13.2	10.3	10.9	11.8	10.6	10.7
변액 보험	보험료	23,789	12,093	16,215	24,761	30,752	83,822	27,479	27,675
	성장률	212.2	334.3	392.4	295.8	168.4	252.4	127.2	70.7
	구성비	4.4	8.8	11.5	14.1	19.1	13.6	17.5	17.8
개인 계	보험료	480,140	125,408	131,646	141,137	149,330	547,521	144,041	146,465
	성장률	7.4	11.1	11.6	14.2	18.8	14.0	14.9	11.3
	구성비	89.3	91.6	93.0	80.4	93.0	89.1	91.7	94.1
단체	보험료	57,366	11,526	9,891	34,486	11,298	67,201	13,095	9,186
	성장률	1.1	39.5	12.8	7.2	38.2	17.1	13.6	-7.1
	구성비	10.7	8.4	7.0	19.6	7.0	10.9	8.3	5.9
합계	보험료	537,506	136,933	141,537	175,623	160,628	614,722	157,136	155,651
	성장률	6.7	13.0	11.7	12.8	20.0	14.4	14.8	1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6 2/4분기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사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증가세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 상위 3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비중이 62.4%로 하락(전분기대비 1.2%p 하락)하여 시장점유율의 감소세가 지속됨.
 -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6.9%와 20.7%로 확대되었으며, 외국사의 점유율은 3분기 연속 20%를 상회하고 있음.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위 3개사	68.5	67.1	65.3	66.9	64.3	65.9	63.6	62.4
외 국 사	16.5	18.0	18.6	16.8	20.1	18.3	20.1	20.7
국내중소형사	15.0	15.0	16.1	16.2	15.6	15.8	16.3	16.9
허핀달지수	0.1848	0.1833	0.1731	0.1778	0.1632	0.1739	0.1614	0.1546

-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6년 9월말 알리안츠 등 10개사이며, 하나,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9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6 2/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수지를 비롯한 투자영업수지와 기타수지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준비금전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1.5% 감소한 7,800억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지는 전년동기대비 보험영업비용이 1.9% 소폭 증가하고 보험영업수익이 2.8% 증가함에 따라 6.8% 증가함.

- 투자영업수익은 3.2% 증가에 그쳤으나 투자영업비용이 19.4% 감소하면서 투자영업수지는 전년대비 8.5% 증가하였음.
- 기타수입이 2.9% 증가에 그쳤으나 기타비용이 14.9% 감소하면서 기타수지차는 24.6% 증가하였음.
- 법인세가 감소했으나 준비금전입액이 일반계정 실적증가로 확대됨에 따라 당기순익이 감소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1/4	2/4
총수익	보험영업	121,728	245,944	371,024	500,499	125,079	252,867
	투자영업	29,363	60,610	91,883	125,203	31,688	62,531
	기타	14,412	6,575	6,576	10,080	3,054	6,685
	소계	165,502	313,129	469,484	635,782	159,821	322,083
총비용	보험영업	96,807	199,745	317,595	428,830	97,465	203,548
	투자영업	5,413	11,621	17,221	22,803	5,351	9,367
	기타비용	12,680	3,814	4,129	5,830	1,605	3,246
	소계	114,900	215,181	338,945	457,463	104,421	216,161
수지차	보험영업	24,921	46,199	53,429	71,669	27,614	49,319
	투자영업	23,950	48,989	74,662	102,400	26,337	53,164
	기타	1,732	2,761	2,448	4,250	1,449	3,439
	소계	50,603	97,948	130,539	178,319	55,400	105,922
준비금전입		42,154	83,547	111,892	151,083	50,636	95,226
법인세		1,644	3,014	4,170	6,264	1,330	2,895
당기순이익		6,805	11,388	14,477	20,972	3,433	7,800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6 2/4분기 전체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입보험료가 증가하고 지급보험금증가는 비교적 소폭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2.5%p 감소하였고, 사업비율은 전년 동기대비 소폭(0.2%p) 증가함.
- 생존보험 중 연금보험과 사망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였으나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보험금이 29.2% 감소하면서 전체 일반계정 개인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은 하락함.
 - 특별계정 변액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전년동기대비 381.5%나 증가하면서 보험금지급률은 14.7%로 상승함.
 - 사업비율은 수입보험료 증가와 함께 사업비도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와 비슷한 18.8%를 기록함.
 - 신계약률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해약률도 소폭 감소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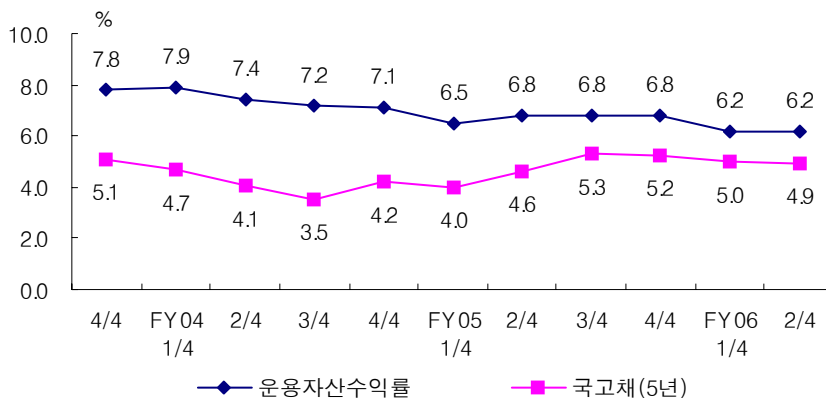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보험금지급률	58.8	58.6	57.6	56.9	58.6	57.9	52.7	55.1
생 존	55.7	62.5	63.0	70.0	70.4	66.6	60.8	66.7
사 망	34.8	34.2	36.2	36.4	39.4	36.6	37.2	40.9
생사혼합	119.3	133.5	138.1	199.2	133.2	151.0	108.3	109.9
변 액	12.2	4.9	5.2	6.1	8.0	6.5	12.1	14.7
개 인 계	57.0	52.3	52.8	59.1	50.5	59.9	45.6	49.3
사 업 비 율	19.2	19.0	18.6	16.3	18.0	17.9	17.8	18.8
신 계 약 률	27.3	5.5	12.4	19.1	28.0	28.0	5.5	11.5
해 약 률	14.2	3.2	6.1	8.8	11.9	11.9	3.1	5.8

주 : 1) 보험금지급률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 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해약률 (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임.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지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6 2/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6.2%였으며, 2분기 연속 운용자산수익률과 시중금리가 횡보세를 보이고 있음.
-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만기보유증권의 비중은 2.3%p 증가하였음.
- 매도가능증권에서 채권비중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익률은 전분기대비 0.4% 상승하였고, 주식비중은 전분기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수익률은 전분기대비 1.2% 하락함.
- 유가증권 투자비중은 전분기대비 0.8%p 증가한 반면 최근 거의 비중 변화가 없었던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분기대비 0.5% 감소한 21.7%를 나타냄.

<그림 2>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1/4		2/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2.2	3.5	2.2	3.8	2.0	4.0	2.4	3.9	2.1	4.5
유 가 증 권	59.0	6.1	59.0	6.0	59.4	6.1	59.2	5.4	60.0	5.4
○ 단기매매증권	3.2	9.5	2.9	10.9	2.9	9.5	2.3	5.7	2.3	5.8
- 주 식	0.3	63.9	0.1	110.4	0.1	93.9	0.1	12.0	0.1	17.4
- 채권 등	1.9	5.2	1.7	6.2	1.6	6.9	1.5	5.7	1.2	6.4
- 수익증권	1.0	6.5	1.0	7.3	1.2	5.4	0.7	4.9	1.0	3.9
○ 매도가능증권	47.5	5.9	47.9	5.7	46.2	6.0	46.3	5.2	47.0	5.3
- 주 식	4.6	3.3	5.1	2.7	5.1	4.0	4.8	3.7	5.1	2.5
- 채권 등	40.0	6.5	39.3	6.3	37.7	6.5	38.3	5.3	38.6	5.7
- 수익증권	2.9	2.4	3.4	1.9	3.4	3.4	3.2	6.8	3.3	5.2
○ 만기보유증권	7.6	5.8	7.4	6.2	9.5	5.3	9.8	5.8	9.9	5.8
- 채권 등	7.6	5.8	7.4	6.2	9.5	5.3	9.8	5.8	9.9	5.8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8	5.5	0.8	5.9	0.8	4.7	0.7	6.4	0.8	5.1
대 출 채 권	22.6	9.3	22.6	9.4	22.5	9.6	22.2	9.1	21.7	9.2
부 동 산	4.5	3.8	4.4	4.3	4.4	4.3	4.3	3.7	4.3	3.7
운 용 자 산 계	88.4	6.8	88.2	6.8	88.2	6.8	88.0	6.2	88.1	6.2
비 운 용 자 산	11.6	2.4	11.8	2.8	11.8	3.2	12.0	4.6	11.9	2.9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90.4)	6.2	100.0 (88.7)	6.3	100.0 (88.1)	6.4	100.0 (87.7)	6.0	100.0 (87.1)	5.8
특 별 계 정 자 산	10.6	5.5	12.8	6.6	11.9	7.1	12.3	4.7	14.8	6.6
총 자 산	100.0	6.2	100.0	6.3	100.0	6.5	100.0	5.8	100.0	5.9
총 자 산 규 모	2,240,311		2,347,662		2,393,619		2,460,733		2,559,105	

주 :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6 2/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에서 설계사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방카슈랑스와 임직원의 비중은 감소함.
- 임직원의 경우 퇴직보험의 초회보험료가 소폭 감소함에 따라 임직원 전체 초회보험료 비중이 하락함.
 - 방카슈랑스 비중은 30.5%로 전년동기보다 2.7%p 축소되었는데 이는 변액보험의 성장이 둔화되고 설계사에 의한 판매가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대리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이었으며, 전분기대비로는 0.9%p 축소된 것으로서, 이는 대리점 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임 직 원	16.5	23.5	21.5	27.8	13.8	21.4	21.9	20.0
설 계 사	38.2	37.7	39.4	44.2	52.1	44.5	43.5	43.5
대 리 점	7.2	6.6	6.0	6.3	7.9	6.8	6.9	6.0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T/M	0.3	-	-	-	-	-	-	-
C/M	0.0	-	-	-	-	-	-	-
방카슈랑스	37.8	32.2	33.2	21.7	26.2	27.3	27.7	30.5
기 타	0.0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6,853	15,713	19,375	28,854	28,827	92,770	20,689	20,046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2005 1/4분기부터 업무보고서 양식변경에 따라 T/M, C/M 채널이 다른 채널에 포함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6 2/4분기말 임직원 수와 보험설계사 수는 각각 전분기대비 1.5%와 1.4% 증가한 반면 대리점수는 4.4% 감소함.

- 대형사와 외국사의 임직원 수가 증가했으며, 외국사의 대리점 수는 크게 증가됨.
- 보험설계사 수는 FY2006 1/4분기부터 증가세를 이어오는 가운데, 국내중소형사들은 전분기대비 5.4% 증가, 외국사들도 2.3% 증가한 반면, 대형사들은 소폭 감소함.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1/4	2/4
임 직 원	25,276	25,688	25,807	26,033	26,051	26,432
설 계 사	134,172	129,647	124,494	123,850	125,542	127,346
대 리 점	6,572	7,238	9,391	10,290	10,812	10,341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김진억 선임연구원, 박정희 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6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 전반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의 소폭 성장과 장기손해보험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한 7조 2,299억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은 FY2006 1/4분기 3조원을 돌파한 이후 2/4분기에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전체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에서는 전년도 손해를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전년동기대비 10.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은 화재, 해상, 보증 등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전분기대비 1.8%p 떨어진 15.7%의 성장률을 시현함.
- FY2006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52조 8,85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9% 성장하였음.
-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증가는 전반적인 원수보험료 성장 및 장기손해보험 성장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 투자영업이익 확대에 따른 것임.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61,236	62,063	69,438	64,498	257,235	69,259	72,299
	9.8	8.8	11.6	12.8	10.8	13.1	16.5
총 자 산	450,522	466,126	488,995	492,774	492,774	508,801	528,852
	3.6	3.5	4.9	0.7	13.4	3.3	3.9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기준이며,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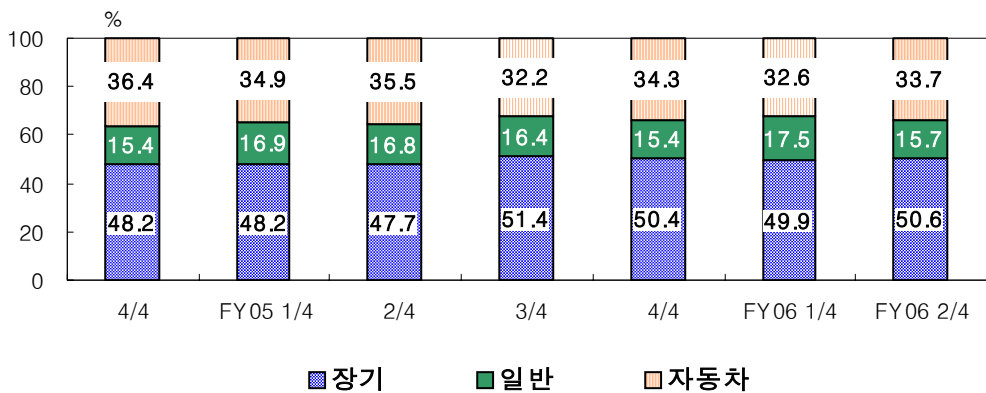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6 2/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이 50.6%, 자동차보험 33.7%, 일반손해보험 15.7%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높은 원수보험료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이 각각 0.7%p, 1.1%p 증가한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1.8%p 감소함.
- 일반손해보험의 부문별 점유율에서는 화재, 해상, 보증보험은 각각 0.2%p, 0.1%p, 0.2%p 감소하였으며, 특히 특종보험에서는 0.8%p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손해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6 2/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조 4,3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성장하였음.

- 자동차보험은 전년도 손해를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자동차등록대수 증가를 회복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부문 및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가 지속되어 전년 동기대비 21.6% 성장한 3조 3,352억원을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상해보험과 저축보험에서 각각 30.2%, 34.8% 증가하였으며, 통합형보험에서는 135.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전체 초회보험료는 43.5%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통합형보험이 55.0%, 상해와 저축성보험이 각각 20.7%, 82.1%의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재물보험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FY2006 2/4분기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1,6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6%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해상보험에서 선박보험과 항공보험은 각각 21.8%와 19.9%의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적하보험은 요율인하적용으로 1.1% 성장에 그침.
- 화재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한 716억원의 원수보험료를 나타내었음.
- 화재보험은 2005년 5월 재산정된 참조위험률 인상효과가 완화된 후 FY2006부터는 주택, 일반, 공장물건의 보험요율 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냄.
- FY2006 2/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6,1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의 성장률을 기록함.
- 특종보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6.3% 성장하였으며, 상해보험과 기술보험이 각각 25.1%와 2.1%의 성장률을 나타냄.
- 반면, 책임보험은 근재보험 등의 요율인하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률(전년동기대비 -7.0%)을 기록함.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료	794	751	913	785	3,243	756	716
	성장률	4.1	13.2	10.7	14.6	10.4	-4.8	-4.7
	구성비	1.3	1.2	1.3	1.2	1.3	1.1	1.0
해 상	보험료	1,399	1,412	1,280	1,186	5,277	2,101	1,604
	성장률	10.7	0.2	1.3	4.4	4.1	50.2	13.6
	구성비	2.3	2.3	1.8	1.8	2.1	3.0	2.2
자동차	보험료	21,386	22,062	22,342	22,100	87,890	22,598	24,344
	성장률	2.6	2.5	1.6	6.1	3.1	5.7	10.3
	구성비	34.9	35.5	32.2	34.3	34.2	32.6	33.7
보 증	보험료	2,255	2,391	2,791	2,630	10,067	2,972	2,665
	성장률	-4.2	9.7	25.8	15.9	11.6	31.8	11.5
	구성비	3.7	3.9	4.0	4.1	3.9	4.3	3.7
특 종	보험료	5,745	5,744	6,263	5,152	22,904	6,143	6,159
	성장률	13.0	12.9	10.1	14.3	12.4	6.9	7.2
	구성비	9.4	9.3	9.0	8.0	8.9	8.9	8.5
해 외 원보험	보험료	129	143	164	173	609	156	205
	성장률	-37.8	-33.0	-13.0	-7.1	-23.5	20.9	43.1
	구성비	0.2	0.2	0.2	0.3	0.2	0.2	0.3
장 기	보험료	26,459	27,435	28,736	29,932	112,562	31,564	33,352
	성장률	16.1	16.5	16.3	18.3	16.8	19.3	21.6
	구성비	43.2	44.2	41.4	46.4	43.8	45.6	46.1
개 인 연 금	보험료	1,684	1,715	1,788	1,789	6,976	1,836	1,884
	성장률	-3.5	2.1	5.5	6.5	2.6	9.0	9.8
	구성비	2.8	2.8	2.6	2.8	2.7	2.7	2.6
퇴 직 보 험	보험료	1,383	410	5,162	752	7,707	1,133	1,370
	성장률	101.8	-42.7	41.7	29.8	37.1	-18.1	234.5
	구성비	2.3	0.7	7.4	1.2	3.0	1.6	1.9
계	보험료	61,236	62,063	69,438	64,498	257,235	69,259	72,299
	성장률	9.8	8.8	11.6	12.8	10.8	13.1	16.5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6 2/4분기 손해보험회사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전업사 및 외국사의 증가로 인하여 일반손해보험회사 점유율이 축소되었음.

-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70.8%로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하였으며, 일반사 합계는 0.3%p 감소한 94.6%를 나타내었음.
- 온라인 단종보험사는 현대하이카의 신규시장 진입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한 2.7%를 기록함.
- 전업사는 보증보험사 영업신장으로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한 4.1% 점유율을 나타내었으며, 외국사는 0.1%p 증가한 1.4%를 보임.
- 대형사를 중심으로 일반사의 점유율이 축소되면서 허핀달지수는 0.1529를 나타내어 전년동기대비 시장집중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2/4
점유비	상위4개사	71.8	71.6	71.4	71.3	71.3	70.7	70.8
	일반사 계	95.0	94.9	94.7	94.8	94.8	94.3	94.6
	전 업 사	3.8	3.8	4.0	4.0	4.0	4.4	4.1
	외 국 사	1.2	1.3	1.3	1.2	1.2	1.3	1.4
허 핀 달 지 수		0.1583	0.1581	0.1567	0.1557	0.1557	0.1519	0.1529

주 : 1)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6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누적기준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의 총비용〉

- FY2006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투자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수지 적자가 심화되어 전년동기대비 42.1% 감소한 4,589억원을 기록함.
- 금리인상 등 자산운용여건이 다소 개선됨에 따라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9,669억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익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영업실적 호조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한 12조 7,173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손해율 상승 및 장기손해보험 IBNR 적립률 상향 조정 등으로 보험영업비용이 16.9% 가량 증가한 13조 775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보험영업수지는 3,602억원의 적자를 기록함.
 -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보험영업수지는 6,12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당기순이익은 1,852억원으로 감소하여 일반 손해보험회사들의 손익상황이 악화되었음.

<표 14>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1/4	2/4
총 수 익	보험영업	55,353	112,337	171,114	231,078	62,032	127,173
	투자영업	5,444	12,166	19,477	26,358	6,497	12,926
	기타	2,009	3,209	7,984	9,270	4,352	4,198
	소계	62,805	127,712	198,574	266,706	72,880	144,297
총 비 용	보험영업	54,480	111,893	172,776	236,258	63,356	130,775
	투자영업	1,385	2,720	4,115	5,479	1,795	3,257
	기타비용	2,376	3,412	8,733	10,251	4,193	3,811
	소계	58,241	118,024	185,624	251,988	69,344	137,843
수 지 차	보험영업	872	444	-1,662	-5,180	-1,324	-3,602
	투자영업	4,059	9,446	15,361	20,879	4,702	9,669
	기타	-367	-202	-750	-982	159	386
	소계	4,564	9,687	12,950	14,717	3,536	6,453
법 인 세		801	1,755	2,727	2,844	1,055	1,864
당기순이익		3,763	7,932	10,223	11,873	2,532	4,589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6 2/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대비 3.4%p 상승한 101.9%를 기록함.
-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한 반면,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2.8%p 증가하여 FY2005 1/4분기 이후부터 합산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FY2006 2/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손해율 악화는 주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에 기인하고 있으며,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손해율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특종보험의 손해율은 악화되었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율이 FY2005 5.69%, 2006년 9월 5.78%로 증가함에 따라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짐.

<표 15>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1/4	2/4
손해율	화재보험	38.8	42.8	41.2	40.9	48.6	40.7
	해상보험	42.8	50.3	49.8	52.0	51.3	50.3
	자동차보험	71.5	73.0	76.8	76.6	77.2	78.9
	보증보험	27.9	10.7	-1.0	2.9	16.2	10.5
	특종보험	40.3	47.0	48.0	51.6	48.5	55.8
	해외원보험	29.1	43.3	55.6	52.4	26.1	40.4
	장기보험	85.6	85.6	85.7	86.4	86.7	85.3
	개인연금	117.6	118.7	119.1	125.9	119.9	119.8
전 체		75.3	75.9	77.0	77.9	78.6	78.7
사업비율		22.1	22.6	22.9	23.2	22.6	23.2
합산비율		97.4	98.5	99.8	101.1	101.2	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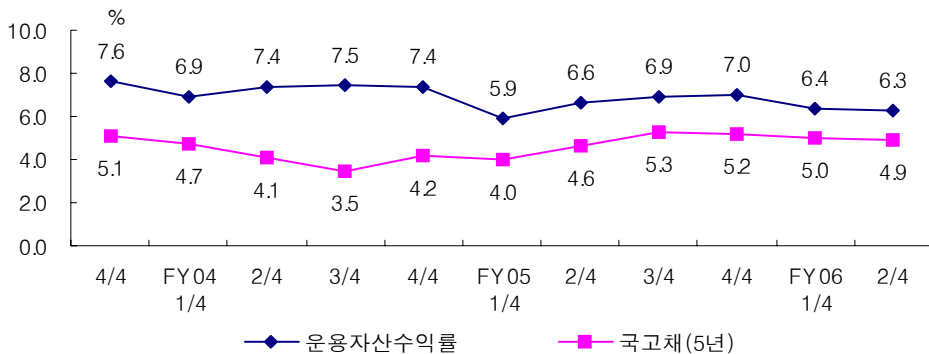
주 :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6 2/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분기대비 0.1%p 감소한 6.3%를 기록하였음.

- 단기매매증권은 처분이익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26.9% 감소함에 따라 전체 단기매매증권으로 운용되는 자산 비중이 축소되어 수익률은 다소 하락하였고,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이익 규모는 19.2%로 소폭 증가함.
- 단기매매증권 수익률은 전분기대비 0.1%p 증가한 7.8%를 나타내었고, 매도가능증권 수익률은 0.4%p 감소한 5.9%를 나타냄.
- 반면, 부동산의 경우 전분기와 동일한 3.3%의 수익률을 기록함.

<그림 4>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
×(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 운용을 위해 채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나타냄.
- 일반계정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5%p 증가한 36.4%를 나타내었고, 주식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1%p 확대된 7.0%를 기록함.
-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한 17.3%, 부동산은 0.7%p 감소한 7.0%를 나타냄.
-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은 총자산 대비 84.5%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1.9%p 감소하였음.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1/4		2/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4.3	3.7	4.3	3.6	4.0	5.2	4.7	4.2	4.6	4.6
유 가 증 권	56.5	6.8	55.9	7.2	55.8	9.9	54.8	6.5	55.6	6.2
○단기매매증권	9.5	9.7	8.1	10.9	7.9	12.9	6.3	7.7	6.1	7.8
- 주 식	0.7	82.2	0.6	103.8	0.3	176.3	0.3	31.9	0.3	34.0
- 채 권 등	5.7	7.2	5.1	8.0	5.5	9.7	4.9	6.8	4.6	7.3
- 수익증권	3.2	4.5	2.4	4.5	2.0	6.1	1.0	5.9	1.2	4.6
○매도가능증권	43.2	6.0	43.7	6.4	43.7	9.1	44.5	6.3	45.3	5.9
- 주 식	6.9	8.0	7.5	7.8	7.2	13.8	6.8	7.1	7.0	5.3
- 채 권 등	34.9	12.6	34.7	5.9	35.1	9.3	35.9	6.1	36.4	6.2
- 수익증권	1.4	9.6	1.5	12.0	1.5	20.9	1.7	5.8	2.0	6.9
○만기보유증권	3.2	5.8	3.3	8.8	3.4	8.2	3.4	6.4	3.4	6.1
- 채 권 등	3.2	5.8	3.3	8.8	3.4	8.2	3.4	6.4	3.3	6.1
○투자주식 ¹⁾	0.6	18.6	0.7	19.9	0.8	27.5	0.7	12.0	0.8	12.0
대 출 채 권	17.6	7.9	17.6	8.1	17.9	8.0	17.6	7.8	17.3	8.0
부 동 산	7.7	3.1	7.5	3.5	7.4	3.5	7.3	3.3	7.0	3.3
운 용 자 산 계	86.1	6.6	85.2	6.9	85.1	7.0	84.4	6.4	84.5	6.3
비 운 용 자 산	13.9	-	14.8	-	14.9	-	15.6	-	15.5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96.7)	5.7 -	100.0 (96.2)	6.0 -	100 (96.3)	12.2 -	100.0 (96.4)	5.5 -	100.0 (76.5)	5.3 -
특 별 계 정 자 산	3.4	-	3.8	-	3.7	-	3.6	-	3.5	-
총 자 산	100.0	5.5	100.0	5.7	100.0	5.9	100.0	5.3	100.0	5.1

주 : 1) 수익률은 누적실적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6 2/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중 T/M과 C/M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직급과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회사직급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6%p 증가한 13.6%를 기록하였음.
-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장기손해보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4%p 증가한 4.5%를 나타내는 등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6%p 감소하였으며, 대리점의 비중은 2.0%p 하락한 45.4%로 나타나 전통채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표 1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1/4	2/4
회사직급	6,845	14,617	28,894	30,336	9,694	18,875
	11.4	12.0	12.3	12.2	14.2	13.6
보험설계사	20,929	43,592	66,438	89,616	23,953	49,034
	35.0	35.9	35.8	35.9	35.2	35.3
대 리 점	29,157	57,563	87,361	117,211	30,988	63,081
	48.7	47.4	47.0	47.0	45.5	45.4
중개사	766	1,302	2,133	2,677	573	1,185
	1.3	1.1	1.1	1.1	0.8	0.9
방카슈랑스	1,801	3,806	5,999	8,370	2,679	6,317
	3.0	3.1	3.2	3.4	3.9	4.5
공동인수	329	626	954	1,318	238	564
	0.5	0.5	0.5	0.5	0.3	0.4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6 2/4분기 손해보험의 모집조직 생산성에서는 대리점과 임직원이 전년동기대비 뚜렷한 향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설계사의 생산성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임직원의 경우 온라인채널 실적의 성장에 힘입어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6%의 생산성 향상을 기록함.
 - 설계사 조직에서는 장기손해보험 판매로 설계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10.2% 하락함.
 - 대리점의 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4.3% 향상됨.

<표 18>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1/4	2/4
임 직 원	24,738	22,223	25,611	25,804	25,730	25,956
	27,669.0	65,774.4	89,390.5	117,526.8	37,677.6	72,718.1
보험설계사	63,818	59,739	75,728	72,116	74,230	74,823
	32,795.0	72,970.3	87,732.5	124,256.8	32,269.0	65,532.8
대 리 점	45,785	43,193	45,758	45,646	45,493	45,381
	63,682.9	133,270.1	190,919.3	256,782.2	68,115.8	139,002.4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조혜원 선임연구원, 박정희 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1.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도 선진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및 입법
예고

- 정부는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넓히는 한편,
 -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사기조사 강화 등 관련 제도 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

<개정 배경>

금융업권간
겸영 확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최근 금융업권간 겸영 확대, 복합 금융상품의 등장으로 금융겸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추세
 - 은행 중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본시장통합법(안) 제정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기능별 통합도 가속화될 전망
 - 금융겸업화의 진전 과정에서 금융업권의 고유 업무가 점차 붕괴되어 동종·이종 금융업종간 경쟁이 격화
- 보험업은 금융겸업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
 - 보험사가 취급가능한 업무의 폭이 여타 금융업권보다 제한되어 있어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
 - 상품개발이나 보험사의 업무와 관련한 일부 불필요한 규제로 새로운 금융수요에 대응할 경쟁력이 취약
- 금융겸업화에 따른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개정 방향>

보험산업의
금융겸업화에
대한 토대 마련

- 보험산업의 금융겸업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종합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
 - 상품개발과 영업 관련 규제를 다른 금융업권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경영의 자율성·효율성을 제고
 -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넓혀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기반을 마련하고 대형화·종합화를 유도
 - 보험사기 대응, 공시제도 개선, 소비자보호의 강화 등 보험산업의 제반 하부구조와 제도를 선진화

<개정안 주요내용>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
개선을 개정

-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 개선
 - 상품개발 절차의 합리화
 - (현 행) 상품 관련서류의 경우 금감위에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사후)제출하도록 함.
 - (개 선) 상품 관련서류의 (사후)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신고하도록 개선
 - 기초서류 확인절차의 간소화
 - (현 행)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한 경우 선임계리사(보험사 내부)와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확인을 2중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개 선)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 중 하나만 택하여 기초서류를 확인 받도록 간소화
 -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범위 확대
 - (현 행)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에 사모펀드가 제외되어 자산운용제한 및 PEF투자활성화 저해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개정**

- (개 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선박투자회사 등을 포함.

□ 보험사의 업무영역 확대

- (현 행)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다른 금융업은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당해보험사 보유자산에 한함), 신탁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부수업무도 보험업법상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수업무만 허용
- (개 선)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범위 확대(다른 금융사의 보유자산에 대해서도 허용) 등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수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 규정례에 준하여 Negative 방식으로 변경

□ 보험업 관련 제반 제도 선진화

○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 (현 행) 급증하는 보험사기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의 정의·사기 조사권 부여 등 관련 근거규정이 불비
- (개 선) 보험사기 정의 및 유형을 신설하고 금감위(원)의 사기 조사권을 명확화

**보험업 관련
제반제도
선진화 개정**

○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현 행) 전문지식 등에 차이가 있는 보험소비자에 대한 차등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미비
- (개 선)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보험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전문소비자로 구분하고 설명의무 등을 차등 적용

○ 공시제도 합리화

- (현 행) 보험협회의 비교·공시는 내용 및 대상이 획일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경영공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방대
- (개 선) 비교·공시 및 경영공시를 일반소비자들이 실질적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

○ 보험모집시 허위·과장광고 금지근거 마련

- (현 행) 허위·과장에 의한 보험상품 안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광고행위시 준수사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근거 미비
- (개 선) 보험상품 판매광고시 허위·과장 안내 등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 * 보험회사에서 광고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은 금감위가 정하도록 함.

<개정 추진경과>

□ 「보험제도 개편방안」 용역

- 보험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마련된 「금융검업화에 따른 보험제도 개편방안」(05.8 ~ 06.9) 내용과 업계·학계·언론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보험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06.9.7)에서 제시된 의견도 폭넓게 수렴

□ Zero-Base 금융규제개혁 과제

-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집중 추진해 온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서 발굴된 과제* 반영
- * 기초서류 확인절차 간소화, 자회사소유범위 확대,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제도 개선 등

□ 기타 관계부처 협의, 민관T/F 등을 통해 합의·정리된 과제*

- * 보험사기 정의·유형 신설, 금감위(원) 사기조사관련 자료제공 요청권, 허위·과장광고 금지근거 마련 등
- ⇒ 이상과 같은 입법수요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 자료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6.10.19.

(박정희 연구원)

보험제도 개편
방안 용역,
금융규제개혁
과제,
기타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

2.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 마련·추진

〈추진 배경〉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대한 대책 마련

- 자동차보험은 지난 2000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이 낸 보험료가 보험사기자에게 지급되어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상해·방화 등 중대범죄를 유발함.
- 이에 관계부처 정책간담회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함.

〈자동차보험 정상화 추진과제〉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한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 ①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 초과사업비 집행관행 억제
 - 보험회사별 자체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마련하여 사업비 누수요인 점검 및 경비절감방안을 마련
 - 수수료 및 각종 경비 등 사업비 사용내역을 매분기별로 공시토록하여 방만한 사업비 관리 억제
 - 사업비 과다사용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하여 사업비 절감 및 자율합병,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유도
 - 불공정 모집행위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
 - 부당모집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제재금을 엄정 부과하는 등 자율규제를 활성화

- 특별이익 제공, 보험계약 불법매집 및 대리점 부당지원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

□ 보험회사의 가격덤펍 관행 억제

-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가격책정시 손해율 등 통계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사후 검증
-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험료 적정성 검증시 활용함으로써 실제 손해율에 의거 보험료를 산정하는 체제를 구축

②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대책 강화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한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대책
강화

□ 도로·교통안전시설의 개선

-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지점중 도로개선, 신호체계개선 사항을 집중발굴하고 교통사고 DB를 구축하여 지자체 등 시설관리기관의 개선노력을 유도함.
- 위험도로 개선, 보행안전시설 확충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 정비·확충

□ 교통사고 감소노력의 추진

-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경찰관 집중배치, 무인단속카메라 신설·확충 및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 추진
- 교통법규 준수를 위하여 범칙금 납부율을 제고하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범칙금 인상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운전면허 취소처분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수칙 등 보급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추진과제>

①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 보험사기 조사 효율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화**

-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종 공제기관 등 공공기관간 필요 자료·정보를 교환
- 공공기관간의 자료제공 요청은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한정
- 보험조사협의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구체적인 엄격한 기준을 설정·운용하는 등 자료제공에 대한 심사장치를 마련
-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사기를 위법행위로 명확히 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

□ 보험금 누수 억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누수
억제**

- 허위 입원 등 과잉진료 소지가 있는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를 강화
- 진료비 과잉청구가 억제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이를 처벌
- 자동차 정비업체의 수리비 내역서 보존 등 관리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
-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상이한 수가체제로 인해 보험사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합리화

② 보험사기 수사 및 조사역량의 강화

□ 수사기관간의 협력 및 보험사기 수사지원 강화

수사기관간의
협력 및 수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조사역량 강화

-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한 수사요청시 수사기관내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검·경 등 수사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 주요 보험사기혐의자 추출, 자료분석 등 금감원의 수사지원을 강화하고 금감원·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수사 지원팀」도 활성화
- 보험사기 적발 유공자에 대한 특진·표창 등 보험사기 수사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민영보험과 공보험의 보험사기 조사 강화

민영보험과
공보험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조사
강화

- 현행 보험조사협의회가 민영보험 뿐만 아니라 공보험과의 긴밀한 협력을 총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
 - 보험조사협의회에 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신규 참여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
- 보험사기 혐의가 높은 보험계약 등에 대해 보험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적정성 여부 심사를 위탁함으로써 민영보험과 공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동시에 방지

□ 보험사기 조사역량 강화

- 금감원에 기획조사 확대, 보험사기 관련 정보분석 및 사후관리, 수사지원 활성화 등을 위한 「보험사기 특별조사반(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설치
- 보험회사도 조사인력을 확충하여 보험사기 전담조사조직을 활성화
- 보험회사 스스로 상품개발-보험금지급까지 각 단계별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발굴·분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피드백

*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2006.11.7

(조혜원 선임연구원)

3.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 시행

1) 조치의 배경

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05년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3차례('05.6.30, '05.8.30, '06.3.30)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부동산 시장은 금년 5월 이후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불안한 양상이 재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도 6월 이후 금리상승, 영업경쟁 자체 등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9월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 이는 주택가격 상승, 가을 이사철, 주택매매거래량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최근의 부동산시장 동향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금융회사 및 가계의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 마련

○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내부준비를 거쳐 '06.11.20(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2) 주요 조치내용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도·감독 강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취급에
대한 조치내용

□ 임점검사 실시('06.11.6일부터 2주간)를 통해 LTV, DTI 적용의 적정성, 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등을 중점 점검

□ 과도한 금리 할인, 유인금리 제시, 경품 제공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및 과당경쟁 억제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지도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강화>

(1) 은행·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LTV) 예외 적용 대상 폐지

은행·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
예외 적용 대상
폐지

- 현재 “만기10년초과·6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LTV 40%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수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대출(거치기간 1년미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감독당국은 예외적용 대상을 폐지하여 은행·보험사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를 40% 이내에서 취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임.

※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내의 아파트담보대출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LTV 한도를 60%로 유지

(2)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LTV 규제 강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LTV 강화
및 DTI
적용범위 확대

- 비은행 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은 금융기관 및 대출기간에 따라 대부분 60~70% 수준으로 LTV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LTV를 50% 이내로 제한할 계획임.
- 다만, 만기 10년초과·6억원이내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은행·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인 60%로 지도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 현재 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Debt-to-Income)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 DTI=(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부채 이자상환액)/총소득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실태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 점검 및
추가조치 예정**

3) 향후 대응방향

- 금번 대책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불안이 향후 가계 및 금융회사
의 건전성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 실수요자에 대하여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주택담보
대출은 이번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공급될 것으로
예상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실태, 부동산시
장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견
될 경우 추가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임.

*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2006.11.15

(박정희 연구원)

4.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 Road Map(안) 공청회 개최

한국회계기준원

주관으로

국제회계기준

수용 Road

Map(안) 공청회

개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한국회계기준원 주관으로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을 위한 로드맵(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

○ 일 시 : 2006. 11. 21(화) 오후 2시 - 5시20분

○ 장 소 : 한국증권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

-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안)

○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필요성

- 배경

·국제회계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정착 추세

* 100여개국이 전면도입 또는 허용

·독자적 회계기준 유지에 따른 대외 신뢰도 불리

·회계기준 국제정합성 확보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기대효과

·전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국제수준으로 제고하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

·글로벌 기업들의 이중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경감

○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기준 주요차이

구분	국제회계기준	국내회계기준	영향
공시체계의 차이 (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 서류가 연결회사 전체 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공시	개별재무제표를 원칙 으로 공시 연결재무 제표는 부수적, 사후 적 연차보고만 공시	연 결 재 무 제 표 공시시기 등의 부담증가
자산·부채 평가 방법차이	원칙적으로 자산·부채 를 공정가치로 평가	신뢰성을 중시 객관 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에 대하여는 취득원가로 평가	평가비용 증가, 보험부채증가, 퇴직금부채증가

보험동향 2006년 겨울호

구분	국제회계기준	국내회계기준	영향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준의 차이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실 고려 일부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 또는 허용	금융기관대출금감소, 상환우선주부채처리
	연결범위: 50%초과지분보유+실질지배력	연결범위: 30%초과최대주주+실질지배력	지분율기준연결범위축소
	지배회사소유지분을 제외하여 지분법적용범위판단	지배회사소유지분포함하위판단	지분법범위축소
	영업권:비상각 부의영업권:즉시환입	영업권:상각 부의영업권:일정기간환입	비용감소, 이익증가
	충당부채인식: 자원유출가능성 50%	충당부채인식: 자원유출가능성 80%	충당부채증가
	유형자산평가: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	유형자산평가: 원가법만인정	비교가능성제고
	금융상품등 광범위한 주식공시요구	비교적공시요구가적음	주식공시부담증가

○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식

- 도입방식

모든

국제회계기준을

특정시점부터

전면 도입

모든 국제회계기준을 특정시점부터 전면 도입
→ 57개 국제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1호 등
→ 기업회계기준해석서(K-IFRS) 제2001호 등

- 현행 회계기준 제·개정절차 준용
- 국제기준 전면도입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수정(일부 대안삭제 또는 추가 주식공시 요구 고려)

○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모든 상장회사	투자자들이 높은 수준의 회계정보 요구 상장기업간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확보필요 - 국제적으로 상장기업은 단일회계기준적용(SME불허) * 비상장회사는 회계부담경감과 국제사례 등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
금융회사	이해관계자가 많고 경제전반에 큰 영향 - 비상장 소규모 저축은행, 신용조합 등제외 - 보험업은 국제기준변경 예상->적용시기예외

- 희망하는 비상장회사도 허용하되, 적용이후에는 변경불가

o 국제회계기준 도입시기

국제회계기준은
단계별로 도입

구분	시행시기	적용대상기업	비고
1단계	2009년	- 국제회계기준적용 희망기업(금융회사제외) * 해외상장기업의 경우 조기적용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06.3.현재 39개사	선택적용
2단계	2010년	- 모든 상장기업(금융회사포함) * '03.3 현재 상장기업은 1,632개사	의무적용

- 1년 조기적용을 허용 : 준비된 기업부터 적용+Bench Marking
 가능, 국제회계기준의 글로벌스탠더드화 추세에 적극 대응
 * 금융회사는 통일성과 감독목적을 고려하여 조기적용 배제
- 국제회계기준 적용 1년 전에 차이정보의 주석공시 의무화

o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위한 전제조건임.
- 분·반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의무화
-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연결기준으로 공시
- '08년말까지 외감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추진

- o 비상장회사를 위한 별도 회계기준 제정
 -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
 - 산출된 회계정보가 유용하여야 하는 전제 조건 충족

*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2006.11.22.

(김진익 선임연구원)

5.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불완전판매
예방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 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신속·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통신판매 등 비대면채널 활성화에 따른 불완전판매 예방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음.

(1)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보험소비자
위주의
신속·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현
보험상품의
설명제도 개선

- 복잡하고 전문화된 상품 내용을 보험소비자에게 신속·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현행 보험상품 설명제도를 개선
 - 보험상품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기존 상품요약서를 보험계약자가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설명서로 대체
 -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및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높은 사항*을 집중 안내
 -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 관련 전문용어는 일상용어를 중심으로 표기하고 최소 10p 이상의 글자크기 사용 및 배색 활용
 - 보험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
 - 상품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청약시 보험계약자의 확인제도 도입
 -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 실시
- ※ 상품설명제도 개선사항은 상품별 표준상품설명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07.4월부터 시행

(2) 통신판매 증가에 따른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채널에
적합한
판매절차 및
보험약관 등의
교부기준 마련**

- 통신판매 등 비대면채널에 적합한 보험판매절차를 마련
 - 통신판매자가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을 의무화
 -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권유부터 청약 완료시까지 통신판매 과정을 음성녹음토록 함.
- 보험계약 청약철회 방법 확대
 - 보험계약 체결은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나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 인터넷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전자서명,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개선
-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기준 마련
 -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을 CD등에 저장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위·변조 가능성, 컴퓨터 이용이 곤란한 보험계약자의 약관내용 확인곤란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 전자약관은 사전에 동의한 보험계약자에만 교부토록 하고, 보안시스템 마련, 재생프로그램 내장 등 미비점을 보완토록 개선

(3) 자동차보험 요율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요율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 보험요율 변경관련 규제 완화
 - 현재 손보사는 (i)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변경, (ii) 차종별 보험료 적용 또는 (iii) 예정이익율 2% 초과 설정을 위해 감독당국에 사전신고(File&Use) 해야 하나,
 - 이를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후제출(Use&File)로 규제 완화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리운전중 사고시 대인배상 I (책임보험)만 보상이 가능하나,
- 교통사고 피해자 및 대리운전 이용자(車主) 보호를 위하여 대리운전중의 사고시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보상도 가능토록 개선
- 다만,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될 경우 차주(車主)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을 제외하여 중복보상을 방지
- ※ 운전자 범위를 제한(가족한정, 부부한정, 1인한정 등)하지 않는 기본계약 경우에만 적용되며, 보험회사들이 약관을 개정하여 '07.11.1부터 기시행중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표준약관 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상품 개발 및 판매 불가, 「보험업감독규정」 §7-58)

(4) 기타 규제완화 사항

기업성 보험의 공시의무 완화 및 보험전문인 보수교육 제도 폐지

- 기업성보험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의무 완화
 - 기업성 손해보험 등 전문소비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가입설계서 등의 인터넷 공시를 면제
-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수교육 이수제도 폐지
 -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보험전문인에게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수교육 폐지
 - ⇒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험회사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2006.11.24

(박정희 연구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자본시장통합법
안 차관회의
통과

□ 재정경제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통합법안)은 금년 6월 30일 입법예고된 후에 그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쳤음.

○ 이 과정에서 원안(입법예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일부 제도를 개선하였음.

(1) 입법예고안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상호에 '투자'라는 문자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나,

- 이 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함(입법예고안 제38조제1항 삭제).

(2) 입법예고안에서는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 금융시장의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 재위탁을 허용함(안 제42조제5항 단서).

* 해외유가증권 투자시 동 투자자산에 대한 신탁업의 경우에는 재위탁 필요성이 존재(예: 국내 수탁은행→ 해외 custodian bank→현지은행)

(3) 입법예고안에서는 현재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 규정을 통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 법 체계상 동 규정을 통합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를 분리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기로 함.

*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와 재무활동에 관하여 상법상 회사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입법예고안 제153조 및 제154조 내지 제179조)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의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일부
제도는 개선됨

- (4) 입법예고안에서는 일부 신탁업자에 대해 고유재산 운용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 이를 폐지하여 여타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입법예고안 제99조 삭제).
- (5)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거래소로 일원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되,
 - 현행 수시공시항목 중 70여개에 달하는 공적규제 항목은 20여개로 대폭 축소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도」(금감위 보고)로 분리함(안 제161조).
- (6) 입법예고안에서는 투자일임업자·투자자문업자의 대주주 변경시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 동 금융투자업이 등록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 보고로 갈음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 재경부는 12월 29일(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안을 당초 계획대로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본 법안을
상반기 입법
추진 후,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

- 2007년 상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계획대로 입법될 경우, 2008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 상품설명제도 개선사항은 상품별 표준상품설명서 작성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07.4월부터 시행

* 자료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6.12.28

(박정희 연구원)

해외보험 동향

1. 미국동향

<미국, 2006년 손보 상반기 결산>

□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은 미국 손해보험의 2006년 상반기 재무실적을 분석·발표함.

□ 미국손해보험산업은 2006년 상반기 15.6%보다 감소한 13%의 수익률을 나타냈으나(ISO와 미국손보협회 발표) 이러한 수익률이 계속 유지될 경우 지난 20년래에 최고의 재무적 성과로 2006년 Fortune 500의 평균 지분수익률 14.5%와 거의 같음.

- 기록적인 재난손실이 있었던 2005년의 경우, 수익률은 10.4%로 Fortune 500 기업들의 14.9%보다 낮았음.
- 연말까지 큰 재난 손실이 없을 경우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됨.

<2006년 : 이익의 정점>

□ 2006년 상반기 손해보험 재무성과는 전망대로 매우 양호함.

- 비록 이익은 전년동기보다 9.3% 감소한 2백 83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보험산업의 언더라이팅 결과가 매우 뛰어난 92%의 상반기 합산비율이며 이는 1986년 ISO가 분기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좋은 결과임.
- 만약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반세기이후 가장 좋은 결과일 것임.
- 2005년보다 많은 20%이상의 과세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상반기 수익성 감소의 주요인은 9.3% 감소된 투자성과임.
- 재난손실의 감소에 의한 수익성 개선은 2006년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재건의 해가 될 것을 의미함.

III, 미국
손해보험산업
의 2006년
상반기
재무실적을
분석발표

2006년 상반기
재무실적 매우
양호

- 이익은 계약자잉여금을 확충할 것이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재난에 대한 완충에 도움을 줄 것임.
- 또한 개선된 자본은 평가회사들이 카트리나로 인해 손보사들에게 부과한 높은 자본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임.

<표 1> 미국 손해보험 2006년 상반기 재무실적

Guaranteed
Renewable
상품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단위 : 10억달러	
순경과보험료	\$ 215.0
발생손실(손실조정비용포함)	141.3
비용	58.0
계약자배당	0.6
순보험영업손익	15.1
투자수익	24.5
기타 항목	0.1
세전영업수익	39.7
실현자본손익	0.9
세전수입	40.6
세금	-12.3
순세후수익	\$28.3
이익잉여금(기말)	\$445.5
합산비용	92.0

- 그러나 개선된 수익성으로 손해보험요율과 재보험률이 재난빈발지역에서 낮아질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주택보험, 기업재물, 사업중단보험과 에너지, 해상보험가격은 상대적으로 보험사들과 재보험사들의 기대보다 적절하지 않음.
 - 보험요율은 2007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 또한 2006년과 2007년에 대한 도전과 위기를 내포하고 있음.

향후 도전과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도전과 위기는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2007년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며, 그 요소들은 보험료의 큰 변동, 언더라이팅 성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익의 진동으로 특징지어지는 보험순환의 명백한 현상들임.
- 순환 자체는 전체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통제가 잘된 언더라이팅과 가격설정은 파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열쇠임.

<주의점과 도전요소들>

1) 완만한 보험료성장(상반기 2.9%)

- o 가격구조취약 : 손해보험의 재난보험 재보험을 제외하고 개인과 기업성 중목의 가격환경에서 전반적인 연성화가 진행되고 있음.
- 평균 기업성 고객들은 2006년 상반기동안 약 3%의 가격인하를 해서 갱신함.
- 반면 자동차 보험료성장은 정체되고 주택보험료는 물가인상보다 소폭 인상됨.
- o 효율압력 : 규제당국은 특히 재난 빈발 지역에서 보험사들이 리스크기준 효율을 부과하는 것을 거절함.
- o 저조한 경제성장 : 경기과열을 식히는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상은 주택, 자동차, 기업재물과 산재보험 등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종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o 보험료 누수 : 전통적인 기업성 보험 구매자들에게 있어 위험전가의 대안적 형태, 즉 캡티브, 자가보험과 대규모 공제 등에 대한 관심증대는 상당한 보험료 누수를 야기함.
- ▶ 경영진은 M/S를 위해 가격경쟁에 참여할 유혹에 빠질 수 있고 CEO들은 잠재적으로 옳지 않은 인수결정을 할 압력을 느끼게 됨.

현재 회사의
장점을 배가할
수 있는
성장기회를
찾아야 함

2) 빠른 자본축적(작년 9.0%)

- o 투자자산의 이익과 가치증가 : 순익증가와 지난 4년에 걸친 자산가격회복은 계약자잉여금(PHS) 증가에 기여 2006년 6월 30일 현재 기록적인 수치인 4,455억 달러에 달했음.

새로운
성장기회의
기근, 제한된
M&A 기회,
위험회피성향
증가 등은
도전요소임

- 개선된 자본은 재무건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반면 초과자본은 ROE를 감소시킬 수 있음.
- o 새로운 성장기회의 기근 : 손해보험산업은 포화되어 있음.
 -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와 주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금액증액을 위한 촉진노력이 있지만 신상품과 새로운 종목 및 영역으로의 확대는 제한된 자본량의 생산적인 할당으로 귀결됨.
 - 그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새로운 자본축적만큼 보조를 맞추지는 못했으며 많은 성장 기회가 존재하지만 현재 보험사들의 사업모델 수정이 필요함.
- o M&A에 대한 제한된 기회 : 손보업계에서의 M&A활동은 제한적임.
 - 오늘날 M&A활동에 있어 장애요인은 보험산업 자본의 상당비중이 상호보험사들의 장부상으로 적립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짐.
- o 등급평가회사 요건 : 2004년과 2005년 기록적인 허리케인의 출현으로 등급평가회사들은 보험사들에게 동일한 등급유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본을 유지할 것을 요구함.
- o 새로운 자본의 진입 : 카트리나가 나타난 이후 약 250억달러에서 300억달러의 신자본이 손해보험과 재보험산업에 유입되었음.
 - 신자본의 상당한 유입에도 불구하고 370억달러에서 400억달러에 달하는 2005년 세후손실을 차감하면 증가된 금액은 여전히 감소함.
- o 위험회피성향증가 : 보험사들은 2004년 거의 1,000억달러의 재난손실을 본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얼마의 자본을 장부상 유지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움.
- o 자본수익률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초과자본이 언제 발생되고 있는지 주주 또는 계약자에게 안전하게 반환될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경영과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식보험회사들은 stock buyback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 빠른 자본축적의 일차적인 결과는 ROE가 낮아진다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구조적인 성장 혹은 합병에 의한 성장기회가 제한적인 경제상황에서 악화됨.
- 한편 이러한 대규모재난과 민감한 등급평가회사들의 시대에는 보험회사들의 자본구조가 잘 구성되어있는 것이 중요함.

〈언더라이팅 성과 : 매우 양호〉

- 보통 재난이 많은 3분기가 사실상 무재난으로 끝난 상황에서 상반기의 우수한 언더라이팅실적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손해보험산업은 94.9%의 합산비율로 최고였던 1955년 이후 51년만에 최고의 언더라이팅결과를 얻는 것임.
 - 2005년 보험사들은 612억달러의 기록적인 재난손실로 고전했음.
 - 상반기 합산비율이 92%로 회귀한 것은 2004년과 2005년 전례가 없는 재난을 겪은 보험산업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성 재물보험과 개인재물보험의 가격은 2007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며, 이는 향후 10년에서 20년간 평균이상의 허리케인활동이 예측되기 때문임.
 - 해변에 노출된 구조물들에 대한 재보험가격 또한 계속 유지될 것임.
 - 사실상 미 손해보험산업은 과거 28년에 걸쳐 단지 2개 연도, 즉 1978년과 2004년만 언더라이팅이익을 시현했음.
 - 이것은 합산비율이 100이하였던 회계연도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함. 예를 들어 2005년은 1분기 92.2%의 인상적인 합산비율로 전환된 후 기록적인 언더라이팅 이익이 궤도에 올랐으나 결국 101의 합산비율과 수십억달러의 언더라이팅 손실로 해를 마감했음.

재산손실의
감소는
언더라이팅
성과를
양호하게 함

- 그러나 올해는 대규모 허리케인의 가능성은 적으며, 따라서 2006년 상반기 151억달러 언더라이팅 이익과 함께 온순한 허리케인 시즌의 도래로 2006년도 언더라이팅 이익은 300억달러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임.
- 재난손실은 언더라이팅 성과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며 보험사들은 기업성 및 개인성 종목에 걸쳐 가격하락, 낮은 경제성장과 규제당국의 요율압력 등의 형태로 점증하는 경쟁압력에 직면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보험사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과 자본축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신용등급과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수익률을 창출해야 함.

〈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은
9.3% 감소함

- 손해보험산업의 순투자이익은 전년동기 280달러보다 9.3% 감소한 254억 달러임.
- ISO에 따르면 이러한 손실은 순투자수입(주로 채권이자와 주식 배당)이 3.6% 감소하고 실현투자이익이 66.4% 감소한 것임.
- 다행스럽게도 상반기 실현자본이익의 악화는 일시적 퇴보이며, 상반기 상승폭이 적었던 S&P 500 지수도 3분기 현재 호조를 보임.
- 금융시장은 에너지가격의 하락뿐만 아니라 연방준비은행의 결정에도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있음.
- 이자율이 상승하는 상황은 보험사들에게 다소 부정적임.
 - 투자자산의 68%가 채권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의 방향은 결정적으로 중요함.
 - 미국 10년물 T-note의 평균수익률이 2006년 2분기 5.07%였으나 9월 21일 현재 4.65%로 하락했고 이는 2004년 6월 4.73%와 거의 같은 것임.

- 사실상 수익률곡선은 또 다시 뒤집힌 것이며 단기 이자율은 Fed가 이자율을 인상하기 시작한 때보다 훨씬 높음(2004년 6월 3월 T-bill 수익률은 1.29%였음).
- 9월 21일 이자율은 4.92%로 10년물 T-note보다 27bp 높고 사실상 동일 30년 T-bond 수익률은 4.78%에 불과했음.
- 이러한 상황은 재무담당이사들에게 어려운 선택의 문제를 안겨줌. 즉 더 떨어지기 전에 장기이자율상품에 투자할지 아니면 높은 이율의 단기상품에 묵혀둘지의 문제를 안겨줌.
- 장기투자결정은 이자율리스크로 가득 차 있음.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 채권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예를 들어 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충격 또는 전쟁)을 하기는 쉬움.
- 한편 요율은 더 하락할 수도 있음. 만약 수익률곡선이 원래의 형태로 회귀한다면 현재 장기투자가 바른 전략일 것임.

자료 :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2006 - First Half Results", 2006.10.2

(김진익 선임연구원)

<미국, 3분기말 현장판매 동향>

□ LIMRA international 은 미국의 3분기 말 현장판매(worksite sales)*실적을 조사하여 발표함.

* 현장판매(worksales) 또는 자발적 판매(voluntary sales)는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서 판매되고 급여공제를 통해 납입되는 상품들을 말함. 상품은 단체 혹은 개인기준으로 판매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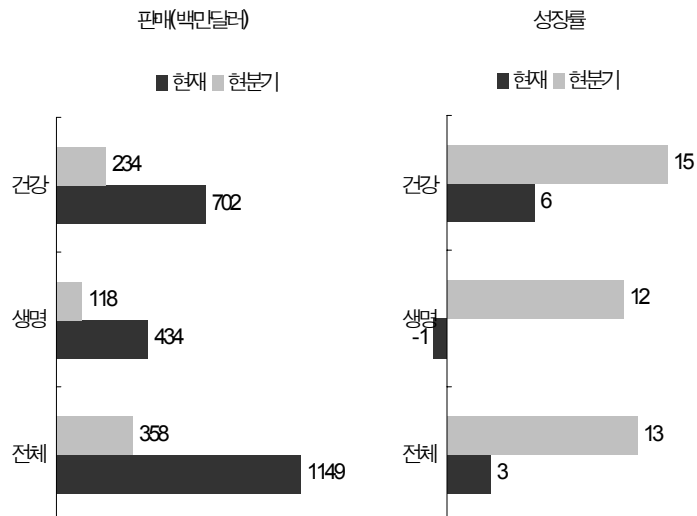
<2006년 3분기 : 시장활동>

□ 3분기 자발적 판매(개인 및 단체 포함)는 급증했는데 이는 지난 3년 중 가장 큰 분기실적임.

미국, 현장판매
2006년
3분기실적
13%증가

- 신계약보험료는 7월에서 9월까지 3억 58백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05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것임.

<그림 1> 2006년 판매 - 신계약 보험료



정기생명,
종신생명,
AD&D종목의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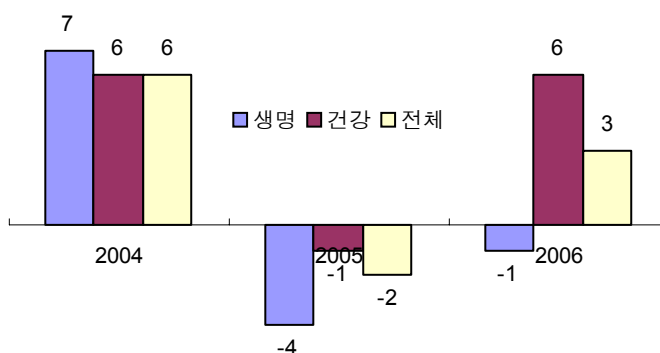
- o 2005년 동기와 비교해서 3분기 말까지 3%의 양호한 성장을 나타냄.
- 자발적 건강보험의 판매는 이러한 성장의 주요인이며 3분기 15%성장했으며, 3분기 말까지는 6% 성장했음.
- 자발적 생명보험상품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함. 이러한 2자리수의 3분기 판매성장은 2006년 자발적 생명보험판매 부진을 상쇄시킴.
- o 비록 정기보험의 경우 9월까지 2005년도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고 있지만 정기생명, 종신생명, 그리고 독립적인 AD&D(Accidental Death & Dismemberment) 보험상품은 모두 3분기 큰 폭으로 증가함.

<표 2> 주요 자발적 상품 종목 성장률(2006년 9월말, 단위 : %)

정기생명	-6	치명적질병(CI)	2
종신생명	3	상해보험	3
AD&D	2	치과보험	10
단기장애	5	의료보험	22
장기장애	3		

- o AD&D 상품은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하는 반면 종신생명보험판매는 소폭 증가에 그침.
- 치과보험과 의료보험은 다른 현장판매 건강보험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3분기 실적성장으로 인해 9월말까지 장·단기 장애보험, 치명적 질병보험, 그리고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증가함.
- 2006년 성장은 3분기말 2004년보다 낮지만 2005년 실적보다는 분명히 개선되었음.
- 한층 양호한 4분기 실적을 감안할 때 2006년 자발적 보험의 보험료는 2005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임.

<그림 2> 전년동기 분기말 성장률 추이(단위 : %)



* 성장률은 연환산 신계약보험료 성장률임.

조사참여회사
들중 절반이
5% 이상
성장함

- 조사참여회사의 절반에서 2006년 자발적 보험의 신계약보험료가 5% 이상 성장했으며 5개 회사는 적어도 35% 이상 성장함.
- 3개 회사는 평탄한 성장(-4.9~4.9%)을 보였으며, 나머지 13개 회사들은 지난해와 유사한 5% 정도 하락함.
- 자발적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30개 회사중 13개 회사들이 적어도 5% 정도 성장이 개선되었으며 이들 회사중 4개 회사는 약 35% 증가함.

자료 : LIMRA International, Third Quarter Review 2006,

" U.S. Worksite Sales".

(김진익 선임연구원)

2. EU 동향

<직장에서의 건강 개선 : 직장보건에 관한 기업의 입장>

① 직장보건의 범위

직장보건
서비스 범위
확대에 대한
수요

- ABI(Association British of Insurers)는 직장보건 서비스 범위를 직장인의 건강개선을 비롯하여 장기적으로는 인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의함.
- 이러한 서비스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혜택을 줌.
 - 고용주 : 효율적인 직장보건의 관리는 질병으로 인한 결근, 재교육 및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고용인의 충성심을 높일 수 있음.
 - 고용인 : 직장보건은 우연한 사고나 직업특성상 위험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 시에도 빠른 복귀를 통해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취함.
 - 보험회사 : 직장복귀 시점이 빨라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클레임 처리 절차의 간소화 및 기간 단축으로 인해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연유로 보험사들은 직장보건 서비스 기금을 늘리고 있는 실정임.
 - 납세자 : 비생산자 지원 및 국가보건 서비스에 대한 예산 압력을 줄일 수 있으며,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생산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표 1> 직장보건의 범위

리스크 추정 및 관리	건강 개선 및 방지	결근 관리, 조기 치료 등	치명적인 질병 관리	장기간의 복직 훈련
----------------	---------------	-------------------	---------------	---------------

② 영국에서의 직장보건 서비스 현황

직장보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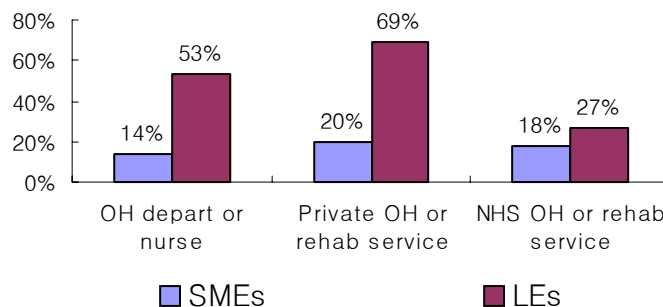
- 이와 같이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직장보건 서비스 발전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조사에서는 고용주들의 직장보건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는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의 태도를 고찰하였음.
- 본 전화설문은 2006년 5~6월 사이 영국의 건강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급 4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본 샘플은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통합과 더불어 중소기업사와 대형사를 모두 포함시킴.

③-1 연구조사 결과

직장보건에 대한 필요성 인식 확대

- 제한된 서비스 조항에도 불구하고 직장보건에 관한 인식은 확대됨.
- 응답자 중 78%는 “직장보건과 복직기능 재활훈련”에 관한 접근법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2001년 Greenstreet Berman이 이와 유사한 주제로 조사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많은 고용주들이 이전보다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보다 월등히 낮은 접근률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

<그림 1> 직장보건 조항



직장보건의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③-2 직장보건에 대한 신뢰여부

□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직장보건에 관한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있음.

- 기업들은 직장보건이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 시 고용주로서의 책임 완수, 장기간 병결로 인한 복귀재 활훈련 및 조기 중재 등에 따른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 여김.

<표 2> 직장보건에 가입하는 5가지 이유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중재	39%
생산인력 확보	37%
치료의 의무	30%
결근률 감소	16%
기업·사회적 책임	14%

- 고용주들은 직장보건이 채용을 늘리거나 유지하기보다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의
직장보건
가입이 낮은
이유

- 중소기업이 직장보건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회사 고용인들의 상해발생 확률이 낮고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임.

<표 3> 직장보건에 가입하지 않는 5가지 이유

	개인부문		공적부문		전체
	중소형	대형	중소형	대형	
필요하지 않음	54	61	56	25	54
이용기회가 적음	28	6	0	0	23
여유가 없음	21	17	19	50	21
생각해 보지 않음	12	0	6	0	10
NHS로 충분함	8	22	0	0	8

직장보건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 Greenstreet Berman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보건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로 비용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상해발생이 다소 미미하거나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음.
- 일부 응답자만이 직장보건에 대한 신뢰 부족과 보상 문제에 대한 당사자간의 적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렇다라는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언급함.

직장보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개선방안

③-3 직장보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정부가 직장보건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항목에 관한 질문에서는 비용지원, 세제혜택,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지적함.

<표 4> 정부가 직장보건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개선 방안	중소형	대형
비용지원, 세제혜택, 인센티브	56%	67%
직장보건에 관한 정보	28%	11%
치료비 지불 청구 문화	8%	8%
서비스 접근성이 용이	1%	11%
비용 효율성을 입증	7%	3%

③-4 직장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도자

직장보건
활성화
방안요소

- 응답자들은 정부와 그 하부 기관들이 직장보건을 발전시키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으며, 인센티브 있는 조항 및 세제혜택과 정보를 비롯한 비인센티브 요소들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 인식함.
-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세제혜택과 같은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서비스 조항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

④ 결론

직장보건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권유 및
환경 조성

- 이번 조사가 직장보건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직장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될 것이라 봄.
-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관대하게 인식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직장보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임.
- 본 조사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비매력요소 제거, 개선된 서비스 조항, 정보, 고용주 의무와 보상체계의 제도 개선 등에 의해 정부가 직장보건의 개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 체계를 제공
- 위와 같이 제도 개혁을 비롯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안이 입안되어야 함.

자료 : ABI, Improving health at work - "Employers' attitude to occupational health" , Oct. 2006

(박정희 연구원)

Solvency II의
재무건전성
규제 추진
동향

Solvency II
시행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수준의 제고가
기대

<Solvency II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투명성) 향상 기대>

- Solvency II 재무건전성규제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QIS2(Quantitative Impact Study 2)는 보험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재평가에 대한 결과를 계량화함에 따라, 정해진 자기자본 준비금(capital charges)에 대한 옵션을 제공해야 함.
- 본 체제하에서 자기자본 준비금의 계산 방식은 향후 수개월내에 귀결될 것이나, 이미 두 가지 방식이 토대가 되고 있음.
 - 첫째,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에 대한 수준은 측정된 가치의 자산과 부채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 둘째, 보험회사가 지닌 모든 리스크에 대한 평가 즉, 통합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사용될 것이라 봄.
- 이러한 체제 변화는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수준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리스크 모델링과 이에 따른 상호의존성은 리스크관리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solvency I 제도는 언더라이팅 리스크에 대해 리스크관리 자본금을 동일하게 적립해 온 것으로 이와 같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자본금 적립에 대한 동일한 규제에서 리스크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향후 보험상품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가격이 결정되어질 것인가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임.
 - Solvency II의 영향에 관한 Swiss Re의 최근 Sigma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차세대 상품은 새로운 체제하에서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 준비금이 요구될 것임.
 - 평균 손해율의 변동성이 큰 일반손해보험, 장기상품 및 옵션과 보증 등 내재파생상품을 부가한 보험상품 등임.

Solvency II는
EU 내
보험회사가
보유한
리스크에 맞게
자기자본을
요구할 것임

- ① 거대재해 성격을 지닌 상품은 평균손해율의 변동성을 보임.
- 전반적인 보험시장 수준에서 적정요구자본 비율은 Solvency II 체제하에서 충분할 것으로 예상됨.
 - Solvency II 제도 변화는 자본체제하에서 바라본 보험산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Swiss Re의 연구결과 이는 보험산업에 있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부족한 자본으로 인식되지 않음.
 - Solvency II는 보험회사의 클레임 관련 변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자본을 요구할 것임.
 -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서 일반손해보험(질병, 상해, 자동차, 보장성보험, 기타)의 손해율 분석은 평균 변동성을 나타내는 사업지수를 제공하는 것임.
 - 이와 같은 결과는 요구자본이 프랑스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116%, 영국은 재물보험(property)이 197%와 같은 범위의 예상하지 못했던 클레임 변동치를 제공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표 5에 의하면 재해보험과 그 외(신용, 항공, 해상보험) 상품들은 평균 이상의 손해율 변동치가 측정된 것으로 나타남.

<표 5> 정부가 직장보건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재해	보장	자동차	상해	기타
독일	+	-	-	+	+
프랑스	+	+	-	-	+
영국	+	-	-	-	+
이탈리아	+	-	-	+	+

< + : 요구자본이 낮은 수준, - : 요구자본이 높은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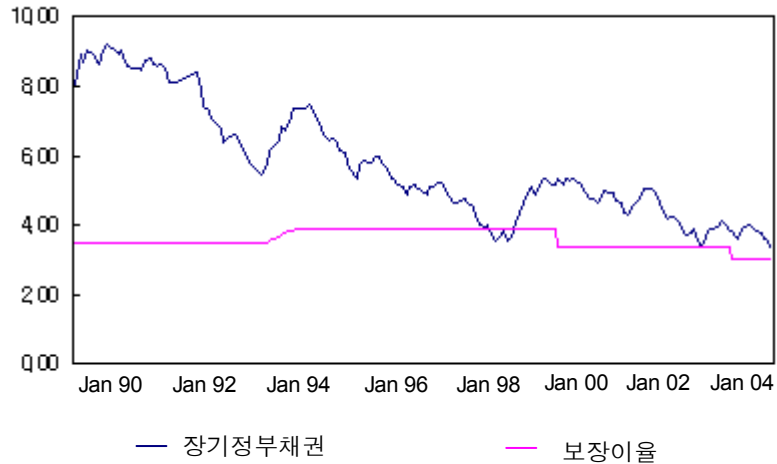
-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들은 보다 높은 자본을 부담(적립)해야 할 것임.
- 이와는 반대로, 자동차보험 시장은 평균이하의 변동치를 나타냄에 따라 solvency 자본이 다소 낮게 요구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으로 거대재해 성격이 있는 상품라인은 추가 자본 적립이 필요할지도 모름.
-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재해상품은 더 많은 자기자본 준비금을 쌓아야 할 것임.
- 책임보험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의 기간만큼 손해율이 완화될 것을 감안해 손해율이 조금 더 낮아져도 될 것임.

② 장기상품과 옵션 및 보장성 상품

- 단기 손해보험상품의 손해율은 언더라이팅 리스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장기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리스크의 특성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임.
- Sigma 연구에 의하면 생명보험 상품들은 여러가지 옵션과 보장(guarantee)을 포함시켰고 전통적으로 이러한 리스크는 평가되지 못하고 가격에 적절히 포함되지 않았음.
- Solvency II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들도 시가로 평가해 준비금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그림 1에서와 같이 독일의 경우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율 하락에 따라 금리스프레드 축소 또는 역전되어 금리리스크 증가에 대해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손해보험상품
의 기간별
리스크 영향
및 특성

<그림 1> 금리스프레드 축소(1990~2003)



*Solvency II*는
상품특성별
새로운 리스크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변화

③ Solvency II는 리스크에 부합된 상품 개발을 촉진할 것임.

- 리스크 부합된 자기자본 준비금 설정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가 얼마정도인지 투명하게 보여주며 리스크에 부합된 상품 개발과 가격결정을 가져올 것임.
- 기존의 계약자들에게는 새로운 리스크 환경변화에 따른 계약의 변경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 다른 옵션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요소는 제거하고 새로운 가격을 책정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것은 다음의 과정으로 얻어질 수 있음.
 - 옵션과 보장에 대한 검토
 - 계약자도 손실의 일부분을 감수해야 하는 계획안 제시
 - 조정이 가능한 용어와 조건들을 제시.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인덱스 보험료, 연금상환율 등.

Solvency II로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른
경쟁구도의
변화가 예상

- 복합적인 위험을 가진 상품들의 조합을 통해 리스크 감소, 다양한 이익을 가능케 하기 위한 리스크 확대, 리스크 헤징, 재보험사나 증권화를 통한 리스크 전가 등.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는 보다 적은 보장과 옵션으로 리스크를 보험계약자, 재보험사, 금융시장으로 분배시키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음.
- 단, 이러한 변화는 전체 산업의 지불 능력이 적절하기 때문에 평균 보험료 수준을 급변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임.
- ④ 근본적인 리스크와 급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였음.
- Solvency II로 인해 산업은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보험상품들은 정확한 리스크에 좀 더 의존하게 될 것임.
- 리스크에 대한 더 나은 이해는 긍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가져오고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risk)와 급부(return)에 초점을 맞추게 해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임.

자료 : Insurance Day, Baden-Baden Special - "Solvency II introduces transparency" , 23 Oct. 2006

(박정희 연구원)

3. 일본 동향

2006년 가계
금융자산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

가계보유 금융
자산잔고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

<가계 금융자산에 관한 조사>

- 제일생명 경제연구소 경제조사부에서는 「가계 금융자산에 관한 조사(2006년)」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자산규모, 금융자산 보유비중, 금융상품 선호도, 소비자 의식변화 등에 대한 조사임.
- 가계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잔고는 전년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였음.
- 저축을 지속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2인 이상)의 평균 보유자산은 1,488만엔으로 전년 1,582만엔보다 감소함.
- 저축을 지속하지 않는 세대를 포함한 전체 세대당 평균 보유자산은 1,119만엔으로 전년도 1,129만엔보다 약간 감소함.

<표 1> 종류별 금융자산금액

(단위 : 만엔)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금융자산보유액	1,347	1,309	1,366	1,448	1,439
예금	508	481	526	526	551
우편저금	247	269	255	281	286
금전대부신탁	51	46	36	39	30
생명보험	283	274	275	300	291
손해보험	-	27	29	33	31
개인연금보험	65	57	66	70	66
채권	24	19	20	19	17
주식	92	74	99	103	90
투자신탁	23	14	14	32	26
재형저축	39	39	39	40	42
기타	15	9	7	5	9
전체 세대	1,210	1,168	1,201	1,246	1,166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금융자산보유액	1,422	1460	1,424	1,582	1,488
예금	550	621	587	628	577
우편저금	279	291	263	290	230
금전대부신탁	24	19	15	21	13
생명보험	277	260	280	265	265
손해보험	38	30	31	41	40
개인연금보험	69	65	69	88	72
채권	23	21	19	32	31
주식	94	96	96	128	138
투자신탁	30	22	20	38	72
재형저축	32	31	37	39	47
기타	6	4	7	13	4
전체 세대	1,158	1,099	1,052	1,129	1,119

저축종류별
내역에서
주식과
투자신탁은
증가

- 저축 종류별 내역의 변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주식과 투자신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투자신탁이 보유금융자산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4.8%로 최고 수준이며, 투자신탁이 은행·우편저금 창구판매를 통해 만기에 도래한 정기예금 등에서 전환한 데에 기인함.
 - 향후 보유를 희망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주식이 10.2%, 투자신탁이 5.8% 등임.
- 가계의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이나 투자신탁이 증가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계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음.
 - 금융상품을 선택할 경우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더라도 그 리스크에 맞는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운용한다」라는 응답비중이 9.0%로 이 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가계의 수익
지향성에 따른
금융상품리스크
에 대한 인식
증가

- 「원금보장이 되어야 운용할 수 있다」라는 응답은 5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999년 65.2%에 비하면 10% 이상 감소한 것임.
- 금융상품의 선택 기준으로 「금리가 양호한 상품」이라고 응답한 응답 비중이 14.0%로 「장래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이라는 응답 비중 3.5%를 크게 상회하였음.
- 1990년대 이후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금리에 대한 선호는 낮게 유지되었지만 2004년 10.1%의 선호도를 나타낸 이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음.
- 가계의 수익지향 정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리스크가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함에 따르는 이해득실도 자기책임이라는 의식도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주가나 환율 변동에 따른 원금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24.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상품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세대도 8.6%임.
 - 이 중에서 「원금변동 가능성을 스스로가 납득하여 구입하였다」고 응답한 세대가 78.6%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 실제 원금 손실을 경험한 세대는 63.6%,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34.7%로 조사되었음.
 - 「금융상품과 별도로 자기책임을 지속해야함은 당연하다」는 응답은 예금에 대해서는 28.7%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으나, 외화예금은 44.0%, 주식은 57.6%로 높게 나타남.
- 이 조사에서는 저축의 보유여부 및 은행 등 계좌를 보유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음.
 - 즉, 저축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는 22.2%로 이 중 12.8%는 계좌를 갖지 않으며, 81.7%는 계좌는 있으나 저축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질병 및
재해대비가
가계저축의
주된 목적으로
조사

경기호전에
따른 리스크
허용범위 확대

- 2006년 연간 수입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3%로 몇 년전까지 8~9%를 나타내었던 것보다 높게 조사되었음.
- 가계가 저축하는 목적으로는 질병 및 재해에 대비가 67.8%, 노후 생활자금 56.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 한편,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여행, 레저 자금이나 소비재 구입자금 등의 마련이라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음.
- 소비자자금을 위한 저축은 2~30대에서 높게 나타나며, 여행, 레저 자금은 6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번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기 호전에 수반하여 가계의 리스크 허용력이 높아지는 등의 의식변화를 보이는 반면,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노후생활을 걱정하는 이유로는 연금이나 보험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전년도보다 5.0%p, 충분한 저축이 없기 때문이 3.6%p, 물가상승이 2.6%p 증가하였음.
- 공적연금이나 기업연금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하다는 응답이 49.8%로 나타남.

자료 : 保険毎日新聞, “06年世論調査「家計の金融資産」を読む”, 2006. 11.20.

(조혜원 선임연구원)

<2006년 생보 전국실태조사 결과-생보상품 가입동향>

① 가입률 및 가입건수

□ 생명보험 세대별 가입률은 87.5%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9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6년 전국
생명보험 상품
가입동향 및
실태 조사

- 이는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은 고연령층 세대의 증가와 조사 대상 세대의 연수입 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 해약이유나 비가입 이유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민영보험 76.4%, 간이보험 43.3%, JA(농협공제) 12.7%로 나타났으며, 세대주 가입률은 82.7%로(이전 조사 가입률 85.3%) 1994년 91.7% 이후 감소추세임.

<표 2> 생명보험 가입률 및 가입건수

(단위 : %, 건)

구분	세대				세대주			
	전체	민보	간보	JA	전체	민보	간보	JA
2006	87.5	76.4	43.3	12.7	82.7	70.4	23.0	8.5
	(4.2)	(3.1)	(2.3)	(2.3)	(1.9)	(1.6)	(1.4)	(1.3)
2003	89.6	76.1	48.7	15.0	85.3	70.6	26.1	10.3
	(4.3)	(3.0)	(2.5)	(2.4)	(1.8)	(1.5)	(1.4)	(1.3)
2000	91.8	79.0	52.0	15.7	87.9	73.2	29.7	10.7
	(4.6)	(3.1)	(2.7)	(2.4)	(1.9)	(1.6)	(1.4)	(1.4)
1997	93.0	80.8	53.4	17.0	89.4	74.6	30.4	12.2
	(4.0)	(3.2)	(2.8)	(2.6)	(2.0)	(1.6)	(1.5)	(1.4)
1994	95.0	82.5	52.3	19.4	91.7	75.6	30.1	14.3
	(5.0)	(3.3)	(2.8)	(2.8)	(2.1)	(1.7)	(1.5)	(1.5)

주 : ()은 가입건수임.

세대별가입률은
다소 감소한
반면 9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

구분	배우자				미혼자녀			
	전체	민보	간보	JA	전체	민보	간보	JA
2006	73.9	56.6	26.8	7.7	55.9	30.8	25.2	3.2
	(1.7)	(1.4)	(1.3)	(1.2)	(1.3)	(1.1)	(1.1)	(1.1)
2003	74.8	55.0	30.6	8.9	57.6	29.2	30.0	4.0
	(1.7)	(1.3)	(1.4)	(1.2)	(1.2)	(1.1)	(1.1)	(1.0)
2000	76.6	55.5	33.7	8.8	58.1	31.5	30.6	3.9
	(1.7)	(1.3)	(1.4)	(1.2)	(1.3)	(1.1)	(1.2)	(1.0)
1997	75.7	55.4	33.6	9.7	59.7	33.2	31.1	4.0
	(1.8)	(1.4)	(1.4)	(1.2)	(1.4)	(1.1)	(1.2)	(1.1)
1994	75.9	54.1	31.9	11.2	60.6	33.6	31.2	5.5
	(1.8)	(1.4)	(1.4)	(1.3)	(1.4)	(1.1)	(1.2)	(1.1)

□ 생명보험 가입세대의 평균 가입건수는 4.2건으로 감소 경향을 지속하고 있음.

○ 민영보험 3.1건, 간이보험 2.3건, JA(농협공제) 2.3건이며,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세대주의 평균 가입건수는 1.9건임.

세대 평균 보통
사망보험금액은
소폭 감소한
반면 세대주
평균 병원
입원일급부금액
은 증가

② 가입금액

□ 세대 평균 보통사망보험금액은 3,269만엔으로 이전 조사결과 3,697만엔보다 428만엔 감소함.

○ 민영보험이 3,055만엔, 간이보험 709만엔, JA(농협공제)는 2,776만엔으로 조사되었고, 세대주의 평균 보통사망보험금액은 2,033만엔, 배우자의 경우 992만엔으로 조사됨.

□ 세대주 평균 병원 입원일급부금액은 10,300엔으로 이전 조사결과보다 500엔 증가하였고, 배우자의 경우 8,400엔으로 이전보다 700엔 증가함.

- 세대당 평균 연간 납입보험료는 52.6만엔으로 이전 조사 53.1만엔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민영보험이 39.6만엔, 간이보험 29.9만엔, JA(농협공제)가 30.4만엔임.

<표 3> 가입금액 및 평균 연간납입보험료

(단위 : 만엔, 병원 입원일급부금은 천엔)

구분	세대당 보통사망보험금액				세대주의 보통사망보험금액 (병원입원일급부금)			
	전체	민보	간보	JA	전체	민보	간보	JA
2006	3,269	3,055	709	2,776	2,033	2,022	483	1,740
					(10.3)	(9.4)	(6.7)	(7.6)
2003	3,697	3,411	812	2,567	2,322	2,392	537	1,637
					(9.8)	(8.8)	(6.5)	(7.2)
2000	4,141	3,781	878	2,690	2,524	2,561	548	1,631
					(9.8)	(8.5)	(6.5)	(7.3)
1997	4,566	4,180	948	2,899	2,732	2,791	587	1,623
					(9.9)	(8.3)	(7.0)	(7.5)
1994	4,635	4,196	855	2,821	2,681	2,755	559	1,516
					(9.4)	(7.9)	(6.7)	(7.0)

구분	처의 보통사망보험금액 (병원입원일급부금)				세대연간납입보험료			
	전생보	민보	간보	JA	전생보	민보	간보	JA
2006	992	924	398	1,276	52.6	39.6	30.4	9.9
	(8.4)	(7.4)	(5.9)	(6.7)				
2003	1,074	1,041	444	1,074	53.1	38.7	30.5	29.7
	(7.7)	(6.7)	(5.6)	(5.9)				
2000	1,131	1,079	446	1,182	61.0	43.3	34.3	30.0
	(7.6)	(6.5)	(5.4)	(5.9)				
1997	1,223	1,181	443	1,172	67.6	49.4	35.4	31.8
	(7.6)	(6.3)	(5.6)	(5.9)				
1994	1,195	1,184	414	1,122	63.8	46.7	33.0	29.4
	(7.1)	(6.0)	(5.2)	(5.6)				

③ 연금형 상품과 개인연금보험

연금형 상품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

- 연금형 상품의 세대 가입률은 24.4%로 1997년 36.1%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 중 개인연금보험의 세대가입률은 21.8%로 1997년 32.0%를 정점으로 감소함.
- 개인연금보험 가입 세대의 경우 세대주 가입률은 62.9%, 배우자 가입률은 59.8%로 나타남.

<표 4> 연금형 상품 및 개인연금보험 가입률

(단위 : %)

구분	연금형상품	개인연금보험
2006	24.4	21.8
2003	28.3	25.1
2000	32.5	29.0
1997	36.1	32.0
1994	35.3	30.5

연금형 상품은
민영보험의
개인연금보험에
주로 가입

- 연금형 상품 가입세대는 민영보험의 개인연금보험에 68.9%, 우체국 연금보험이 19.9%, JA(농협공제) 연금공제에 9.4% 가입되어 있음.
- 민영 개인연금보험에서는 정액형 개인연금보험에 63.5%, 변액 개인연금보험에 6.4%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 개인연금 가입세대의 기본 연금액(연금 개시후 1년간 수취하는 연금연액)의 세대합계액(세대주와 배우자의 합계)은 평균 95.8만 엔으로 나타남.
- 일시납 가입 세대의 경우 일시납보험료의 세대합계액은 평균 637만엔이며, 1000만엔 이상의 세대 비율은 2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 기본연금액 및 납입보험료

(단위 : 만엔)

개인연금
급부개시
연령은 60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구분	세대	세대주	배우자	세대연간 납입보험료	일시납 보험료
2006	95.8	86.3	62.3	21.6	637
2003	89.8	80.0	62.4	18.4	-

- 개인연금 가입세대의 급부개시 연령을 보면, 세대주는 60세가 31.1%, 65세는 27.5%, 배우자는 60세가 28.6%, 65세가 23.5%로 조사되었음.

자료 : 保険毎日新聞, “「06年度生保全國實態調査」に見る生保商品加入動向”, 2006.10.10-11.

(조혜원 선임연구원)

4. 기타 국가 동향

<BRICs 국가의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시장 현황>

BRICs 국가의
생명 및 연금
보험시장은
특정보험회사
의 높은
점유율을 보임

□ BRICs 국가의 생명 및 연금보험시장은 규모가 작고 발전 정도가 낮으나, 향후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사업성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음.

- 2005년도 BRICs 국가 전체의 생명 및 연금 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약 680억달러 수준임.
- 최근 이들 시장의 진입규제는 빠르게 철폐되고 있음.
- 이들 국가의 보험시장은 특정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시장집중도가 높은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참고: 2005년 한국의 수입보험료는 Swiss Re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829억 3천만 달러임.

BRICs 국가의
생명 및 연금
보험의
수입보험료
수준은 중국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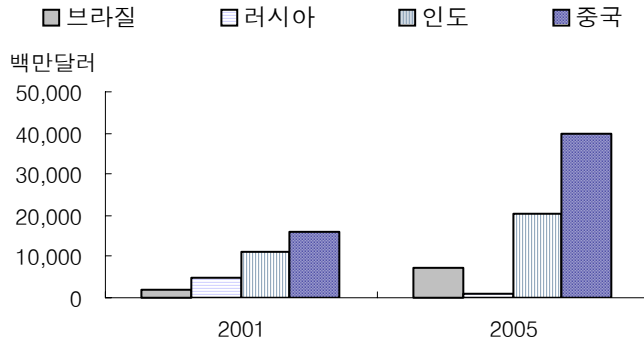
□ BRICs 국가의 생명 및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순이며, 성장속도는 브라질과 중국이 현저히 빠른 추이를 나타냄.

- 중국의 2005년 생명 및 연금 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약 400억 달러에 달하며 2001년 대비 2005년의 성장률은 약 144%로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냄.
- 이들 국가 중 브라질은 2001년 대비 2005년에 330%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성장속도가 가장 두드러졌음.
- 동 기간 동안 인도의 성장률도 약 81%를 기록하였으나, 러시아의 경우에만 오히려 -82%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냄.

□ 브라질 보험시장을 감독하고 있는 민영보험감독청(SUSEP)은 국제보험감독기구(IAIS)의 규정에 따라 제반 규정을 개정함.

브라질의
민영보험감독
청은 국제
보험기구의
규정에 따라
제반 규정을
개정

<그림 1> BRICs 국가의 생명 및 연금 보험 수입보험료



-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시장 진입장벽 완화(1996년 외국인 개방),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의 규제 선진화
- 이에 따라 브라질의 보험시장 규모는 1994년에 GDP의 0.8%에서 2005년에 2.63%로 성장
- 이와 같은 규제 개선과 정치 및 경제적 안정이 지속될 경우 향후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인도의
연금시스템은
여전히
초기단계임

- 인도의 생명보험산업은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하였으나 연금 시스템은 아직까지 초보단계임.
 - 1991년 자유화 이후 많은 기업이 민영화되고 외국 기업에 개방되었으나 보험시장은 1999년에 이르러서 개방됨.
 - 연금제도는 공무원 혹은 대기업 종사자에 한정되어 혜택을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임.
- 중국의 보험산업은 1998년 기존의 중국인민보험회사(PICC)가 인민보험사(People's Insurance Company: PICC손보사), 중국생명보험(China Life Insurance), 중국재보험(China Reinsurance) 등의 3개 기업으로 분리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함.
 - 2003년 지방정부 소유의 PICC손보사가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보험산업의 개혁이 진전됨.

- 또한 2004년에는 중국생명보험이 뉴욕과 홍콩에 동시 상장되면서 당시 가장 큰 규모의 IPO 규모를 기록함.
- 중국 생명보험은 연간 성장률이 GDP성장률(약 10% 수준)의 2배에 달하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 아직은 규모가 작은 수준이며, 연금시장 규모는 GDP의 5~7% 수준으로 한국의 33%, 일본의 50%에 불과함.

BRICs 국가는
국내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외국사들도
이에 가세

- BRICs 국가들은 국내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외국사들이 가세하여 경쟁도가 높아지고 있음.
- 브라질은 국내 은행 소유의 Bradesco Vida와 Itau Vida가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1996년 이후 외국사가 합작기업 형태로 진출하면서 2005년 현재 전체 수입보험료의 25%를 차지함.
- 인도는 국내사인 LIC사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나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중국의 생명보험시장은 국내 대형3사가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외국사인 AIG가 선전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임.
- BRICs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생명보험시장도 상위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가운데 글로벌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FY2005 국내 생명보험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대형3사가 65.9%, 외국사가 18.3%를 차지하였음.
- FY2006 4~8월에 시장점유율은 대형3사가 63.1%, 외국사가 20.4%를 나타내어 외국사가 국내 생명보험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국내 대형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자료 : Datamonitor, 「Life Insurance and Pensions in Brics」, November 2006.

(최영목 부연구위원)

보험동향 2006년 겨울호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5			CY2006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성장률	3.3	4.5	5.3	6.1	5.3	4.8
경상수지	2,352.1	2,198.2	5,167.1	-1,118.4	692.0	374.9
수 출	69,703	71,098	76,811	73,893	81,473	82,729
수 입	63,695	66,228	70,688	72,052	76,623	80,282
실업률	3.8	3.8	3.6	3.5	3.5	3.5
금리	국고채(3년)	3.79	4.32	4.99	4.94	4.87
	회사채(3년)	4.19	4.73	5.40	5.38	5.15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17.6	118.3	118.4	120.2	120.4
		3.0	2.3	2.6	2.0	2.6
환율	원/달러	1,024.4	1,038.0	1,013.0	975.9	960.3
	엔/달러	110.4	113.3	117.8	117.3	115.1
종합주가지수	1,008.16	1,221.01	1,379.37	1,359.60	1,295.15	1,371.41
외환보유고	204,986	206,731	210,391	217,344	224,357	228,224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CY2005				CY2006		
	1/4	2/4	3/4	4/4	1/4	2/4	3/4
보 험	55,643	71,225	77,359	92,935	81,083	93,699	89,600
생명보험	42,277	53,602	60,022	75,781	66,460	74,238	69,914
손해보험	13,366	17,623	17,337	17,154	14,623	19,461	19,686
은 행	-20,297	176,673	96,532	49,098	-41,969	225,384	128,483
일반계정	-30,494	196,056	84,452	41,787	-85,002	183,429	82,785
신탁계정	10,197	-19,383	12,280	7,311	43,033	41,955	45,698
증 권	16,898	11,948	17,618	19,175	-8,291	18,650	48,065
투 신	52,889	46,962	-37,592	74,571	184,828	-5,011	25,649
총 금	19,416	2,048	-10,616	40,443	5,651	31,812	53,010

주: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이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보험	보험료	121,366	28,600	29,441	30,125	31,722	119,887	30,188	31,314
	성장률	4.9	1.2	-5.6	-7.4	8.0	-1.2	5.6	6.4
	구성비	22.6	20.9	20.8	17.2	19.7	19.5	19.2	20.1
사망보험	보험료	255,338	66,402	67,289	68,182	69,342	271,215	69,685	70,840
	성장률	11.3	7.4	6.5	5.7	5.4	6.2	4.9	5.3
	구성비	47.5	48.5	47.5	38.8	43.2	44.1	44.3	45.5
생사혼합보험	보험료	79,646	18,312	18,700	18,070	17,514	72,596	16,689	16,636
	성장률	-15.7	-8.6	-7.7	-10.9	-8.2	-8.9	-8.9	-11.0
	구성비	14.8	13.4	13.2	10.3	10.9	11.8	10.6	10.7
변액보험	보험료	23,789	12,093	16,215	24,761	30,752	83,822	27,479	27,675
	성장률	212.2	334.3	392.4	295.8	168.4	252.4	127.2	70.7
	구성비	4.4	8.8	11.5	14.1	19.1	13.6	17.5	17.8
개인보험계	보험료	480,140	125,408	131,646	141,137	149,330	547,521	144,041	146,465
	성장률	7.4	11.1	11.6	14.2	18.8	14.0	14.9	11.3
	구성비	89.3	91.6	93.0	80.4	93.0	89.1	91.7	94.1
단체보험	보험료	57,366	11,526	9,891	34,486	11,298	67,201	13,095	9,186
	성장률	1.1	39.5	12.8	7.2	38.2	17.1	13.6	-7.1
	구성비	10.7	8.4	7.0	19.6	7.0	10.9	8.3	5.9
전체	보험료	537,506	136,933	141,537	175,623	160,628	614,722	157,136	155,651
	성장률	6.7	13.0	11.7	12.8	20.0	14.4	14.8	10.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71,150	17,888	18,534	21,078	22,329	79,830	18,366	20,876
	증가율	18.1	15.9	18.2	15.5	2.5	12.2	2.7	12.6
	지급률	58.6	62.5	63.0	70.0	70.4	66.6	60.8	66.7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90,676	22,699	24,360	24,793	27,316	99,169	25,910	29,005
	증가율	21.8	11.6	12.5	4.1	9.9	9.4	14.1	19.1
	지급률	35.5	34.2	36.2	36.4	39.4	36.6	37.2	40.9
생사혼합보험	지급보험금	102,335	24,453	25,818	35,996	23,330	109,596	18,080	18,284
	증가율	-14.8	-3.6	9.4	40.6	-16.0	7.1	-26.1	-29.2
	지급률	128.5	133.5	138.1	199.2	133.2	151.0	108.3	109.9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2,905	598	847	1,509	2,463	5,417	3,317	4,077
	증가율	311.6	49.9	109.4	137.5	67.9	86.4	454.7	381.5
	지급률	12.2	4.9	5.2	6.1	8.0	6.5	12.1	14.7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267,067	65,638	69,558	83,377	75,439	294,012	65,672	72,242
	증가율	4.5	6.7	13.4	22.1	-0.6	10.1	0.1	3.9
	지급률	55.6	52.3	52.8	59.1	50.5	53.7	45.6	49.3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49,159	14,651	11,957	16,466	18,729	61,803	17,208	13,496
	증가율	-20.5	32.0	14.0	37.8	19.9	25.7	17.6	12.9
	지급률	85.7	127.1	120.9	47.7	165.8	92.0	133.5	170.7
전체	지급보험금	316,226	80,289	81,515	99,843	94,168	355,815	82,898	85,737
	증가율	-0.4	10.5	13.5	24.4	2.9	12.5	3.2	5.2
	지급률	58.8	58.6	57.6	56.9	58.6	57.9	52.7	55.1

주: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보험	사업비	16,576	3,775	4,331	5,010	5,523	18,639	5,562	6,029
	증가율	17.4	11.8	19.5	34.5	-5.6	-4.9	47.3	39.2
	사업비율	13.7	13.2	14.7	16.6	17.4	15.5	18.4	19.3
사망보험	사업비	68,599	16,078	15,790	16,913	16,437	65,218	15,872	17,138
	증가율	11.2	1.5	-2.0	4.3	-19.6	-4.9	-1.3	8.5
	사업비율	26.9	24.2	23.5	24.8	23.7	24.0	22.8	24.2
생사혼합보험	사업비	14,988	5,444	5,497	5,828	6,124	22,894	5,770	5,398
	증가율	96.0	162.0	73.1	35.8	12.5	52.7	6.0	-1.8
	사업비율	18.8	29.7	29.4	32.3	35.0	31.5	34.6	32.4
개인보험계	사업비	100,164	25,298	25,618	27,751	28,085	106,750	27,203	28,565
	증가율	20.0	18.8	11.8	14.6	-11.5	6.6	7.5	11.5
	사업비율	20.9	20.2	19.5	19.7	18.8	19.5	18.9	19.5
단체보험계	사업비	3,087	686	734	935	845	3,200	765	772
	증가율	13.0	19.9	21.2	32.5	-29.8	3.7	11.5	5.2
	사업비율	5.4	6.0	7.4	2.7	7.5	4.8	5.9	9.8
전체	사업비	103,251	25,983	26,351	28,686	28,929	109,950	27,968	29,337
	증가율	19.8	18.8	12.1	15.1	-12.2	6.5	7.6	11.3
	사업비율	19.2	19.0	18.6	16.3	18.0	17.9	17.8	18.8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료	794	751	913	785	3,243	756	716
	성장률	4.1	13.2	10.7	14.6	10.4	-4.8	-4.7
	구성비	1.3	1.2	1.3	1.2	1.3	1.1	1.0
해 상	보험료	1,399	1,412	1,280	1,186	5,277	2,101	1,604
	성장률	10.7	0.2	1.3	4.4	4.1	50.2	13.6
	구성비	2.3	2.3	1.8	1.8	2.1	3.0	2.2
자동차	보험료	21,386	22,062	22,342	22,100	87,890	22,598	24,344
	성장률	2.6	2.5	1.6	6.1	3.1	5.7	10.3
	구성비	34.9	35.5	32.2	34.3	34.2	32.6	33.7
보 증	보험료	2,255	2,391	2,791	2,630	10,067	2,972	2,665
	성장률	-4.2	9.7	25.8	15.9	11.6	31.8	11.5
	구성비	3.7	3.9	4.0	4.1	3.9	4.3	3.7
특 종	보험료	5,745	5,744	6,263	5,152	22,904	6,143	6,159
	성장률	13.0	12.9	10.1	14.3	12.4	6.9	7.2
	구성비	9.4	9.3	9.0	8.0	8.9	8.9	8.5
해외 원보험	보험료	129	143	164	173	609	156	205
	성장률	-37.8	-33.0	-13.0	-7.1	-23.5	20.9	43.1
	구성비	0.2	0.2	0.2	0.3	0.2	0.2	0.3
장 기	보험료	26,459	27,435	28,736	29,932	112,562	31,564	33,352
	성장률	16.1	16.5	16.3	18.3	16.8	19.3	21.6
	구성비	43.2	44.2	41.4	46.4	43.8	45.6	46.1
개 인 연 금	보험료	1,684	1,715	1,788	1,789	6,979	1,836	1,884
	성장률	-3.5	2.1	5.5	6.5	2.6	9.0	9.8
	구성비	2.8	2.8	2.6	2.8	2.7	2.7	2.6
퇴 직 보 험	보험료	1,383	410	5,162	752	7,707	1,133	1,370
	성장률	101.8	-42.7	41.7	29.8	37.1	-18.1	234.5
	구성비	2.3	0.7	7.4	1.2	3.0	1.6	1.9
계	보험료	61,236	62,063	69,438	64,498	257,235	69,259	72,299
	성장률	9.8	8.8	11.6	12.8	10.8	13.1	16.5

주: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1/4	2/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38.8	42.8	41.2	40.9	48.8	40.7
	사업비율	53.8	52.3	55.2	53.2	46.2	42.7
	합산비율	92.6	95.1	96.4	94.1	95.0	83.4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42.8	50.3	49.8	52.0	51.3	50.3
	사업비율	28.3	29.3	32.2	31.0	27.7	30.0
	합산비율	71.1	79.7	82.0	83.0	79.6	80.2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1.5	73.0	76.8	76.6	77.2	78.9
	사업비율	30.6	31.1	31.4	31.9	31.4	31.6
	합산비율	102.0	104.1	108.3	108.5	108.6	110.5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27.9	10.7	-1.0	2.9	16.2	10.5
	사업비율	12.8	18.4	17.2	21.3	12.5	19.2
	합산비율	40.7	29.1	16.2	24.2	28.8	29.7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40.3	47.0	48.0	51.6	48.5	55.8
	사업비율	25.1	24.9	25.6	25.8	22.1	23.3
	합산비율	65.4	72.0	73.6	77.4	70.5	79.2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29.1	43.3	55.6	52.4	26.1	40.4
	사업비율	73.1	65.6	64.8	72.9	97.7	97.3
	합산비율	102.2	108.9	120.4	125.3	123.8	137.7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5.6	85.6	85.7	86.4	86.7	85.3
	사업비율	15.6	15.9	16.2	16.5	17.4	18.0
	합산비율	101.2	101.5	128.6	103.0	104.1	103.2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7.6	118.7	119.1	125.9	119.9	119.8
	사업비율	9.9	9.6	9.6	10.0	9.5	9.2
	합산비율	127.4	128.4	128.6	135.9	129.4	129.0
전 체	경과손해율	75.3	75.9	77.0	77.9	78.6	78.7
	사업비율	22.1	22.6	22.9	23.2	22.6	23.2
	합산비율	97.4	98.5	99.8	101.1	101.2	101.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동향』

2006년 겨울호(통권 40호)

2007년 1월 10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 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000
인 쇠 소 대 화 인 쇠
전 화 (02) 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7, 368-4183)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